

중남미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CONTENTS

목 차

I. 중남미 시장 개황

1. 시장 특성
2. 불황기의 시장 환경 변화
3. 진출전략

II. 국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1. 멕시코
2. 브라질
3. 아르헨티나
4. 콜롬비아
5. 베네수엘라
6. 칠레
7. 페루
8. 파나마
9. 과테말라
10. 도미니카공화국

I. 중남미 시장 개황

1. 시장특성

□ 한국의 대표적 무역흑자 시장

- '11년 우리나라 대 중남미 무역흑자는 199억 달러로 동남아·중국과 함께 대표적인 흑자 시장
- '12년 상반기(1~7월) 무역수지 규모는 109억 달러로, '11년 동기(113억)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흑자 유지
- * 대 중남미 교역은 1987년 이후 25년 연속으로 흑자 시현 중

【 한·중남미 수출입 현황 ('09~'12.7) 】

(단위 : U\$백만)

구분	2009			2010			2011			2012(1~7)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금액	26,763	11,648	15,116	36,187	14,645	21,543	40,131	20,166	19,966	22,418	11,490	10,928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떠오르는 프로젝트 시장

- 중남미 건설 프로젝트 시장은 '14년까지 연평균 11.8% 성장으로 중동(12.1%)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로 프로젝트 시장규모 확대 추세

□ FTA 전초기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회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중남미 진출 가속화
- 중남미는 우리나라 FTA 확산에 있어 중요한 허브 역할
- '04년 칠레와 FTA 발효 이후, '11년 한·페루 FTA 발효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와 FTA 협상이 타결('12.6월)

2. 불황기의 시장환경 변화

□ (경제동향)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 악화 전망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11년 대비 성장률 감소 전망
- 다만, 인프라 확충, 경기부양 등 추진으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경기 하락은 방어할 것으로 전망
- * 중남미 경제성장률 추이(IMF) : ('10년) 6.2% → ('11년) 4.5% → ('12년) 3.4%

□ (위협요인) 미국 경제 회복 지연, 유럽사태 악화시 경제위축 심화

- 미국 경기 회복세 둔화, 유럽 재정위기 등 상호 역(逆) 시너지로 인해 환율 평가절하, 수입수요 감소, 수입규제 강화, 투자 감소 등 경제위축 우려
- 중남미 주요국 환율은 연초 대비 평균 5~10% 절하되어 수입수요에 부정적 영향
- 유럽계 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유로존 위기 속 불안정 요인
-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의 유럽계 자금의 채권 비중은 약 41~59%에 달함

□ (기회요인) 각종 인프라 확충 사업, 新중산층 증가로 시장기회 상존

-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8%에 이를 정도로 경제 안정성이 강화되었으며, 과거의 만성적 인플레이션도 '00년대 초부터 안정화

【 중남미 인플레이션 추이 및 전망 (1980~2017) 】

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1	2017 ^E
인플레이션(%)	53.6	133.3	478.2	37.8	8.4	6.3	6.6	5.6

-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중산층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등
- * 브라질 경기부양 패키지 발표(660억 달러, 8.15), 칠레 경제안정화 펀드 조성(140억 달러) 등 공공인프라 투자재원 확보
- * 중남미 전체 인구중 중산층으로 파악되는 인구 비중은 약 30%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3. 진출전략

□ (수출확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 확대 및 내수시장 진출 강화

- 글로벌 기업과 협력사업 추진 통한 대규모 수출기회 창출

◇ 중남미 글로벌 자동차 OEM 협력 사업 (11월)

* GM Brazil-Korea Autoparts Plaza 개최 등 중남미내 자동차 메이커들과의 파트너링 확대

- 주요 지방상권 개척 등 내수시장 공략

◇ 주요시장 지방상권 개척 사업 (하반기)

* 멕시코 지방개척(계레타로, 몬테레이 등), 브라질 카라반 사업 등

□ (프로젝트 진출) 국제 스포츠행사 특수 활용 및 수요 창출형 프로젝트 발굴

- 브라질 월드컵('14년) 및 올림픽('16년) 등 국제행사 연관 프로젝트 집중 공략

◇ 중남미 프로젝트 발주처 설명회 및 상담회 (10월)

* Latin America Business Plaza(10월), Global Project Plaza 2012(10월)

- ITS, 통신 등 신규 프로젝트 수요 창출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

◇ 중남미 지능형 교통시스템 프로젝트 개발(하반기)

* 멕시코 Smart Highway 프로젝트 등

□ (FTA 활용) FTA 수출 마케팅 강화

- FTA 상담회, 시장개척단, 수주사절단 등 수출직결 마케팅 집중 전개

◇ FTA Business Plaza (10월)

* 중남미 글로벌·유력 바이어 집중 발굴 및 국내기업 상담회 참가

◇ 중남미 FTA 시장개척단 (하반기)

II. 중남미 지역 수출유망 품목 및 진출방안

1. 멕 시 코

(무역관명: 멕시코시티)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 유지
-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11년 이후에도 안정적 경제 성장 기조를 보임

【 최근 3년간 멕시코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5.5%	4.0%	3.9%

자료원: IMF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멕시코 수출입 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3월
수출액(백만 달러)	298,230	349,568	89,646
수입액(백만 달러)	301,482	350,856	87,900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수출액(백만 달러)	8,846	9,727	5,175

자료원: 관세청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흑자시장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9.7% 무역 흑자를 실현하여 왔으나, 올 상반기(1~7월) 흑자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19.5% 감소

○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총GDP(억달러)	10,354	11,548	11,530
1인당 GDP(달러)	16,323	17,126	17,979
환율(달러:페소)	12.36	13.99	13.68
소비자물가상승률(%)	4.4	3.8	4.4
외환보유고(백만달러)	120,543	149,336	147,315
인구(백만명)	112.3	113.7	114.9

자료원 : EIU, 멕시코 경제부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멕시코 중앙은행은 '12년 소비자 물가를 3%선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물가는 4.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세계경기 침체이후 페소화 절하 등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6월에 발생한 조류 독감으로 소비자 물가는 7월 첫 2주간 0.39% 상승하고 연간 상승률도 4.34%에서 4.45%로 상향 조정됨

○ 금융부문

- 멕시코 페소화는 유럽경제의 불안정의 여파로 올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되어 왔으나, 3분기 들어 다소 하향 안정세(13.2~13.5페소/달러)를 보이고 있음
- 멕시코 중앙은행은 연초 금리인하를 검토하였으나, 유로존 위기 등 세계경기 불안정을 고려하여 '13년까지 기준 금리를 4.5%로 유지할 계획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천불,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5		2010		2011		2012.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휴대용 컴퓨터 (8471.30)	2,188,219	28.1	2,718,549	24.2	998,243	6.04	128,070	33.6	53,628	-58.1	34,749	40.3
2	혈당측정기 (9018.19)	62,464	79.4	78,740	26.0	24,265	22.38	2,199	-58.7	2,371	7.8	1,079	-11.1
3	디지털 도어락 (8301.40)	62,721	22	73,187	16.7	42,510	67.00	222	77.5	462	107.9	600	97.8
4	CCTV (8525.80)	85,390	32.7	96,062	12.5	46,445	34.18	5,993	-19.5	3,664	-38.9	1,364	-21.4
5	폴리올 (3907.20)	9,541	18.6	12,300	28.9	2,774	42.30	8,826	41.4	3,979	-54.9	901	-71.7
6	LED조명 (9405.40)	85,315	8.8	121,170	42.0	54,450	20.57	193	213.3	379	96.5	4,402	1,629.7
7	차과영상진단 장비 (9022)	243,468	28.9	241,656	-0.7	98,330	3.87	579	30.9	1,299	124.3	415	-32.1
8	금형 (8480.71)	130,921	0.02	135,730	3.7	71,795	27.16	81,370	146.3	99,291	22.0	54,754	-13.1
9	자동차브레이크패드 (8708.30)	1,086,812	40.6	1,355,386	24.7	804,654	58.22	1,493	66.1	1,171	-21.5	1,308	91.2
10	PVC 필름 (3920)	1,361,540	33.8	1,580,551	16.0	660,528	0.21	11,028	96.0	26,595	141.2	12,995	15.5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KITA)

주) 2012년 상반기 자료는 주재국과 아국간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1~5월 통계치 활용

10대 품목별 선정사유

1	품목명	휴대용 컴퓨터*	(HS : 8471.30)
---	-----	----------	----------------

* Tablet PC, 미니노트북 등

○ 시장동향

- 멕시코 휴대용 컴퓨터 시장은 향후 2016년까지 약 7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HP, Dell, Lenovo, ASUS 등에서 넷북 등 소형 노트북을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삼성·애플사에서 태블릿 PC 출시 이후 최근 중국으로부터 중저가의 태블릿 PC가 수입되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음. (기존 대비 30~40% 저렴)

○ 경쟁 및 수입동향

- 중국 제품의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미국·일본·대만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도 조립 생산되고 있음
- 일본(소니·도시바) 및 미국(HP) 제품이 고가(高價)에 위치해 있고, 중국(Lenovo) 제품이 중저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멕시코의 휴대용 컴퓨터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188,219	-	2,718,549	-	998,243	-
1 중국	1,997,420	91.3%	2,554,905	94.0%	942,899	94.5%
2 일본	7,578	0.4%	35,023	1.3%	26,250	2.6%
3 대만	4,972	0.2%	20,782	0.8%	8,673	0.9%
4 한국	8,608	0.3%	14,068	0.5%	7,749	0.8%
5 미국	129,367	5.9%	71,690	2.6%	7,480	0.8%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뉴 미디어 및 뛰어난 이동성에 부합하는 태블릿 PC, 미니 노트북 시장은 멕시코에서도 빠르게 성장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태블릿 PC 경우 대학생 등 젊은 층을 타겟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접근할 경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2	품목명	혈당측정기	(HS : 9018.19.99)
---	-----	-------	-------------------

○ 시장동향

- 멕시코 혈당측정기 수입 시장은 2011년 78백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6% 성장
- 멕시코는 비만인구 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더불어 특히 당뇨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유럽 제품의 수입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미국은 35%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중국내 혈당측정기 생산으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물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GE, Roche, Johnson & Johnson, Siemens에서 출시한 제품들이 시장 내 인지도가 높음
- 한국산 제품은 1% 내외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

【 멕시코의 혈당 측정기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62,464	-	78,740	-	24,265	-
1 중국	11,151	17.9%	31,098	39.5%	8,907	36.7%
2 미국	25,756	41.2%	27,825	35.3%	8,706	35.9%
3 일본	8,566	13.7%	7,502	9.5%	1,801	7.4%
4 도미니카(공)	285	0.5%	718	0.9%	946	3.9%
5 독일	4,927	7.9%	3,292	4.2%	560	2.3%
9 한국	790	1.3%	576	0.7%	318	1.3%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당분간 멕시코 비만인구는 지속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한국산 제품은 품질 및 가격이 우수하여 멕시코 시장진입시 안정적 수출이 가능 (멕시코 보건당국에 사전 제품등록 필요)

※ 멕시코 보건당국 제품 등록시 약 6개월~1년여 기간 소요

3	품목명	디지털 도어락	(HS : 8301.40.01)
---	-----	---------	-------------------

○ 시장동향

- 멕시코 디지털 도어락 수입시장 규모는 2011년 73백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7% 성장
- 주된 수요는 기업 및 신규 건축되는 주택이며, 기업에서는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주택 수요층은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도 고려한 제품을 선호

○ 경쟁 및 수입동향

- 디지털 도어락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제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음
- 과거 스페인 제품이 인기가 높았으나, 최근 3년 동안 스페인 제품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07년을 기점으로 가격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국산 제품이 점유율을 확대
- 시장에는 LockState, Rocky Mountain 등 미국 브랜드와 다수의 중국 브랜드가 진출해 있음

【 멕시코의 디지털 도어락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62,721	-	73,187	-	42,510	-
1	중국	24,607	39.2%	27,336	37.4%	17,898	42.1%
2	미국	15,745	25.1%	22,542	30.8%	14,121	33.2%
3	대만	4,619	7.4%	8,027	11.0%	4,619	10.9%
4	태국	3,314	5.3%	3,033	4.1%	1,301	3.1%
5	필리핀	2,849	4.5%	3,841	5.3%	1,280	3.0%
7	한국	276	0.4%	434	0.6%	342	0.8%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멕시코는 치안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도어락 제품의 경우 수입 제품을 선호함
- 멕시코는 신규 건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품 수요 및 시장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품목명	CCTV	(HS : 8525.80.03)
---	-----	------	-------------------

○ 시장동향

- 2011년 기준 멕시코 CCTV 수입은 1억 달러 규모에 근접하였으며, 전년 대비 12.5% 성장
- 중국 제품이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장악
-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후반부터 하락세를 보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멕시코는 CCTV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생산 비율은 낮음
- 주요 수입 국가는 중국·미국·대만·한국·태국 등이며, 중국과 미국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멕시코의 CCTV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85,390	-	96,062	-	46,445	-
1	중국	19,593	22.9%	25,179	26.2%	14,954	32.2%
2	미국	15,724	18.4%	18,138	18.9%	10,568	22.8%
3	대만	12,318	14.4%	18,377	19.1%	7,015	15.1%
4	한국	10,194	11.9%	7,494	7.8%	2,960	6.4%
5	태국	4,952	5.8%	4,777	5.0%	2,677	5.8%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멕시코는 지속되는 치안불안으로 인해 기업체, 주거단지, 건물내 주차장 등 보안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신규수요 및 기존 시스템 교체 수요 증가 중
- 특히, 신규 건축 혹은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도난방지 시스템, CCTV, 화재경보기 등의 보안·감시 시스템 설치를 필수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가격면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력이 부족하나, 고기능·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격적으로 차별화된 고부가 수요를 발굴하여 공략할 필요가 있음

5	품목명	폴리올	(HS : 3907.20.06)
---	-----	-----	-------------------

○ 시장동향

- 화학 첨가제로 사용되는 폴리올 수입 시장은 2011년 약 12백만 달러 규모이나 전년 대비 28.9% 증가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폴리올 제품은 물량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프랑스가 그 다음으로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음
- 기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규모는 미미함
- 한국의 경우, 2010년까지 소량 수출하였으나 이후 멕시코로 판매되는 물량이 전무함

【 멕시코의 폴리올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9,541	-	12,300	-	2,774	-
1	미국	7,775	81.4%	9,731	79.1%	2,290	82.5%
2	프랑스	1,051	11.0%	2,146	17.4%	396	14.2%
3	대만	28	0.3%	56	0.5%	66	2.3%
4	독일	130	1.3%	48	0.4%	10	0.4%
5	이탈리아	21	0.2%	16	0.1%	8	0.3%
16	한국	119	1.2%	1	0.0%	0	0.0%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폴리올 제품은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기 때문에 수요처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 공급이 가능함
- 우리나라는 폴리올 제품 수출을 국내 또는 현지의 에이전트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나, 전문용어의 어려움 및 수시로 변동되는 시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거래선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현지 바이어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한국산 폴리올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며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에서 적절한 지원이 수반될 경우 수출로 직결될 가능성 높음

6	품목명	LED 실외 조명	(HS : 9405.40.01)
---	-----	-----------	-------------------

○ 시장동향

- 멕시코 LED 실외조명 수입 시장은 2011년 1.2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
- LED 조명 제품은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아직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로등·주차장·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외조명 수요가 높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멕시코 LED 실외조명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가 제품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으로 양분됨
- 또한, 유럽경제 위기의 여파로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제품은 미약한 수준이나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

【 멕시코의 실외 LED 조명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85,315	-	121,170	-	54,450	-
1	미국	32,186	37.7%	50,313	41.5%	20,661	37.9%
2	중국	38,078	44.6%	47,232	39.0%	20,613	37.9%
3	스페인	2,016	2.4%	5,322	4.4%	3,426	6.3%
4	캐나다	1,343	1.6%	3,038	2.5%	2,129	3.9%
5	독일	3,566	4.2%	3,408	2.8%	2,031	3.7%
14	한국	91	0.1%	82	0.0%	134	0.2%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멕시코는 전력부족, 치안불안 등으로 전력소비효율이 높은 LED 제품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 특히 야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길 거리, 공원,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밝은 조명시설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최근 태양광과 연계하여 에너지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LED 실외 조명 제품 선호

7	품목명	치과 영상진단 장비	(HS : 9022)
---	-----	------------	-------------

○ 시장동향

- 멕시코 치과 영상진단 장비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0.7%) 감소
- 최근 우리나라 대 멕시코 수출은 최근 1백만 내외로 아직 미미한 수준

○ 경쟁 및 수입동향

-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독일, 이태리, 프랑스)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제품이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일부 아날로그 제품이 멕시코 내에서 조립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멕시코의 치과 영상장비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43,468	-	241,656	-	98,330	-
1	미국	102,874	42.2%	113,770	47.0%	50,217	51.0%
2	독일	49,736	20.4%	57,950	23.9%	23,401	23.7%
3	프랑스	8,131	3.3%	10,924	4.5%	4,786	4.8%
4	이태리	16,400	6.7%	8,712	3.6%	3,352	3.4%
5	일본	27,469	11.2%	8,744	3.6%	2,329	2.3%
17	한국	785	0.3%	1,572	0.6%	348	0.3%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최근 멕시코에서는 미용 및 성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일반 치과 클리닉에서도 영상진단 장비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임플란트 및 교정 분야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향후, 멕시코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시 시장 내 점유율 확대 가능
 - * 특히, 아날로그 제품이 점차 디지털 장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디지털 영상진단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품목명	금형	(HS : 8480.71.90.00) *멕시코 HS : 8480.71.01
---	-----	----	--

○ 시장동향

- 멕시코 금형 수입시장 규모는 2011년 1.36억 달러로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도 전년 대비 3.7% 성장을 보임
- 멕시코의 저렴한 임금으로 인해 멕시코내 제조설비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제조설비 증설 및 신모델 출시 등과 맞물려 금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금형 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주요 수입이 되는 국가는 미국, 덴마크, 중국, 일본, 캐나다 이며, 한국 금형 제품은 감소 추세임

【 멕시코의 금형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30,921	-	135,731	-	71,795	-
1	미국	46,131	35.2%	44,528	32.8%	17,663	24.6%
2	덴마크	10,753	8.2%	20,233	14.9%	11,604	16.2%
3	중국	11,711	8.9%	16,140	11.9%	8,861	12.3%
4	일본	15,703	12.0%	8,915	6.6%	8,439	11.8%
5	캐나다	8,111	6.2%	8,455	6.2%	7,195	10.0%
7	한국	11,792	9.0%	9,988	7.4%	4,336	6.0%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우리나라 금형 기술력은 우수하므로, 현지 자동차 메이커들이 원하는 디자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함
- 특히, 현지 자동차 메이커들의 잇따른 생산설비 확대 및 신차 개발계획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금형 분야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주요 자동차 메이커 대상 금형 공급 시, 안정적 수출망 확보 가능

9	품목명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HS : 8708.30)
---	-----	-------------	----------------

○ 시장동향

- 멕시코에는 GM, VW, Nissan, Toyota, Honda 등 대표적 자동차 메이커들이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설비 확장 등으로 생산규모 지속 증가
-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 증가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 등 관련 소모 부품 시장도 동반 성장

○ 경쟁 및 수입동향

- 브레이크 패드 수입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며, 이는 지리적으로 멕시코와 인접해 있어 물류적 이점이 있기 때문임
- 독일, 일본은 자국 메이커들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일부 스탠다드 제품은 일부 중국에서 조달하며, A/S 시장에도 판매
- 한국에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으나, 멕시코 시장 진출은 미흡함

【 멕시코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086,812	-	1,355,386	-	804,654	-
1	미국	660,278	60.8%	845,480	62.4%	542,043	67.4%
2	독일	73,666	6.8%	98,148	7.2%	67,993	8.4%
3	중국	84,880	7.8%	125,764	9.3%	60,511	7.5%
4	일본	66,412	6.1%	67,636	5.0%	37,775	4.7%
5	캐나다	88,626	8.2%	71,443	5.3%	29,298	3.6%
7	한국	11,339	1.0%	20,815	1.5%	12,204	1.5%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주요 메이커들의 멕시코 내 생산 설비를 확장으로 각종 자동차 부품 공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멕시코는 지형과 도로 구성상 브레이크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A/S 시장 진출도 가능

10	품목명	PVC 필름	(HS : 3920)
----	-----	--------	-------------

○ 시장동향

- 옥외 차량광고, 인테리어 등에 많이 사용되는 PVC 필름 시장은 2011년 15.8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6.1% 성장
- 멕시코에서 PVC 필름의 주된 수요는 디지털 프린트용에 있으며, PVC 필름을 취급하는 업체도 많은 편임
- 아파트 렌트용 광고, 간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의 광고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보세임가공(마킬라도라)으로 인한 재수입률이 높기 때문임
- 최근 일본의 수출량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세

【 멕시코의 PVC 필름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361,540	-	1,580,551	-	660,528	-
1	미국	865,414	63.6%	939,136	59.4%	397,837	60.2%
2	한국	60,670	4.5%	138,395	8.8%	61,497	9.3%
3	일본	113,647	8.3%	92,043	5.8%	35,313	5.3%
4	중국	49,989	3.7%	74,463	4.7%	33,820	5.1%
5	캐나다	39,220	2.9%	44,460	2.8%	19,220	2.9%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선정사유

-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중국 제품의 시장 확산 정도가 낮으므로 적극 진출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 높음
- 또한, 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 단기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진출방안

마케팅 방안

품 목	활용 가능 마케팅 방안		
	전시회	(개최시기)	KOTRA 서비스
휴대용 컴퓨터	Expo Electrica (멕시코 전자전시회)	2013년 6월	· 세일즈출장지원(1개월전) · 지사화서비스(출장후)
혈당측정기	Expo Salud y Bienestar (멕시코 건강 전시회)	2012년12월	· 바이어찾기(2개월전) · 세일즈출장(1개월전)
디지털 도어락	Expo Tu Casa Total (멕시코 주거용품 전시회)	2012년 8월	· 세일즈출장지원(1개월전) · 지사화서비스(출장후)
	Expo Chiac (멕시코 건축산업 전시회)	2012년10월	
	Expo Seguridad (멕시코 보안 전시회)	2013년 4월	
CCTV	Expo Tu Casa Total (멕시코 주거용품 전시회)	2012년 8월	· 세일즈출장지원(1개월전)
	Expo Chiac (멕시코 건축산업 전시회)	2012년10월	
	Expo Seguridad (멕시코 보안 전시회)	2013년 4월	
폴리올	Expo Plastimagen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국제 전시회)	2013년 6월	· 세일즈출장지원(1개월전) · 지사화서비스(출장후)
LED 실외조명	Expo Chiac (멕시코 건축산업 전시회)	2012년10월	· 해외시장조사(2개월전) · 세일즈출장지원(1개월전)
	Expo Habitat (멕시코 주거 종합 전시회)	2013년 5월	
	Expo Electrica (멕시코 전자전시회)	2013년 6월	
치과영상진단 장비	AMIC Dental (멕시코 치과산업협회 전시회)	2012년11월 2013년 5월	· 세일즈출장지원(1개월전) · BI입주(출장후)
금형	Expo Plastico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	2012년 9월	· Auto Parts Plaza Mexico (4분기, FTA사업팀) · 지사화서비스
	Expo Manufactura (멕시코 제조산업 전시회)	2013년 3월	
	Expo Plastimagen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국제 전시회)	2013년 6월	
자동차브레이크 패드	PAACE Automechanika Mexico (자동차 용품/부품 트레이드 쇼)	2013년 7월	· 바이어찾기(2개월전) · 세일즈출장(1개월전) · 지사화서비스(출장후)
PVC 필름	Expo Plastico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	2012년 9월	· 바이어찾기(2개월전) · 세일즈출장(1개월전) · 지사화서비스(출장후)
	Expo Chiac (멕시코 건축산업 전시회)	2012년10월	
	Expo Plastimagen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국제 전시회)	2013년 6월	

* BI(Business Incubator) : 제품 특성상 현지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용 바람직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휴대용 컴퓨터 제품의 경우,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얇가형 모델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최근 휴대성이 뛰어난 태블릿 PC, 미니 노트북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구매 가능한 수준의 가격대로 수요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혈당측정기, 치과영상진단 장비와 같은 의료기기는 멕시코 보건당국에 사전 제품등록이 요구됨
 - 현지 법인설립을 통한 독자적 제품등록 또는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파트너사 이름으로 제품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게 됨
- 폴리올의 경우, 기술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 세일즈 마케팅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임
 - 상담시, 바이어는 상대방이 얼마나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를 보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 LED 제품은 미국, 유럽의 인증(Certification) 취득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이 가능 (바이어들이 인증 취득한 제품 선호)
 - 세부 제품에 해당하는 멕시코 규격 NOM을 사전에 취득해야 함
- 금형 제품은 직접 금형을 사용할 엔드유저(End-user)인 자동차 메이커 등 제조사들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임
 - 멕시코에는 다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구매결정권을 넘겨받고 있어 자동차 메이커 금형 파트와의 토포인트 상담 등을 통해 협력관계 구축 가능 (무역관 적극 활용)
- PVC 필름의 경우, 멕시코내 다수 유통채널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다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샘플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디지털 도어락, LED, CCTV, 치과영상진단 장비 등과 같이 기술적 요소가 강한 제품은 현지 A/S가 무엇보다 중요
 - 판매 후 기술지원이 가능한 현지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거나, 자체적으로 멕시코내 기술지원을 위한 지사 또는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동일한 조건이라면, 문제 발생시 기술지원이 즉각적으로 될 수 있는 제품 구매
-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바이어와 한국기업이 공동 참가하여 제조사와 유통사가 함께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일반적으로 전시회 참가지 기존 구매 고객들이 부스에 방문하게 되며, 이때 제조사를 소개시켜 줄 경우 신뢰성 확보에 효과적임

□ 진출시 유의사항

- (관세) HS Code 끝자리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에 유리한 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우리나라와 현지국간 HS Code가 상이한 품목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
- (인증) 일반적으로 의료·건강·식품 등과 같은 품목은 멕시코 보건당국(Cofepris)에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전자제품의 경우 멕시코 규격(NOM) 취득이 요구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 필요
 - 보건당국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함 (FDA 인증 보유시 기간 단축 가능)
- (샘플) 화학제품과 같이 유독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샘플이라 하더라도 현지의 검사기관의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됨
 - 샘플 발송전 샘플 통관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상호 명확히 해두어야 사후 갈등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음.

2. 브라질

(무역관명: 상파울루)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11년 브라질은 세계경제악화로 예상치인 4.5%보다 현저히 낮은 2.7%의 경제성장을 보임. '12년 브라질 정부는 3%의 경제성장을 전망했지만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실제 성장은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호전된다면 '14년 월드컵, '16년 올림픽으로 인한 투자 확대,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16년까지 5% 대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의견도 있음.

【 최근 3년간 브라질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7.5%	2.7%	3.0%

자료원: 브라질 통계청, 중앙은행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브라질 수출입 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수출액(백만 달러)	201,915	256,039	117,214
수입액(백만 달러)	181,649	226,243	110,14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 '11년 브라질의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는데 이는 철광석 및 농산물 등의 대외수출 호조에 따른 것임.
- . 수입은 24.5% 증가하였으며 이는 브라질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중산층 확대, 헤알화 강세현상,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기계장비수입 확대 등에 기인함.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수출액(백만 달러)	7,753	11,821	6,569

자료원: KITA

○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총GDP(억달러)	20,898	24,7506	-
1인당 GDP(달러)	11,094	12696	-
환율(달러:페소)	1.6662	1.8758	2.02
소비자물가상승률(%)	5.91	6.5	5.53*
외환보유고(백만달러)	2,886	3,520	3,757

자료원 : 브라질 중앙은행, 브라질 통계청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 광산개발업체 발레(Vale), 중국기업 JAC 등의 기업투자 계획(약 950억 달러)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것으로 드러나 브라질의 기업투자가 국내외 경제위기 때문에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문

- 브라질 헤알화는 유럽 재정위기 발발 직전인 2011년 8월 말 1달러=1.59헤알 선까지 하락한 바 있으나 이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2년 5월 중순 1달러=2헤알 선을 돌파하였음. 5월 이후 현재까지 3개월 동안 달러 환율은 1달러=2헤알 선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 브라질 기준금리는 8%로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 인하가 전망됨.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불,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메모리 (8542.32)	751	71.1	718	-4.4	329	-7.5	327	90.5	365	11.4	169	-5.9
2	전자직접회로 (8542.31)	1,875	32.3	2,156	15.0	1,039	-3.3	87	31.6	124	43.3	80	29.5
3	인쇄회로 (8534.00)	418	28.7	485	15.9	241	3.4	68	3.0	79	16.0	36	-10.5
4	자동차부품- 새시 (8708.99)	1,068	40.8	1,132	6.0	519	-8.6	15	229.9	34	123.7	22	86.6
5	기어박스 (8708.40)	1,489	46.8	1,712	15.0	847	2.0	18	335.0	58	224.5	56	196.7
6	휴대폰부품 (8517.70)	1,514	13.8	2,043	34.9	1,025	0.3	257	-17.6	454	76.5	275	11.8
7	위성수신기 (8529.90)	2,954	164.8	3,340	13.1	1,579	5.5	889	193.7	1,085	21.9	552	10.8
8	굴삭기 (8429.52)	456	30.9	537	17.8	303	7.7	174	127.1	180	3.2	83	-22.1
9	타이어 (4011.20)	468	128.3	606	29.5	237	-15.3	61	108.9	101	64.8	42	-0.8
10	텔레프탈산염 (2917.36)	447	31.2	589	31.8	270	-5.8	14	24.8	43	194.6	21	11.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10대 품목별 선정사유

1	품목명	메모리	(HS : 8542.32)
---	-----	-----	----------------

○ 시장동향

- 브라질 메모리 수입시장은 '11년 7억 1,754만불을 기록.
- 현재 브라질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의 현지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 수요 상승 중이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전자제품 수요 증가, 이에 사용되는 메모리 제품 역시 수요 상승

○ 경쟁 및 수입동향

- 브라질에서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포함해 '10년 1,400만대, '11년 1,530만대가 판매됨. 동 기기에 사용되는 메모리는 대부분 한국산으로 향후에도 한국 산 메모리 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브라질의 메모리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751	-	718	-	329	-
1	한국	327	43.6	365	50.8	169	51.3
2	중국	137	18.2	109	15.1	51	15.4
3	대만	142	18.9	109	15.1	49	15.0
4	일본	17	2.3	31	4.3	22	6.8
5	싱가포르	33	4.4	23	3.2	10	3.2

자료원 : SECEX-Foreign Trade Secretariat

○ 선정사유

-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구매가 증가 추세이며 동시에 삼성, LG 등 한국산 브랜드 전자제품에 대한 브라질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증가.
- 컴퓨터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관계로 향후 수요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

2	품목명	전자집적회로	(HS : 8542.31)
---	-----	--------	----------------

○ 시장동향

- 브라질 전자집적회로 수입시장은 2011년 21억 555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4.97% 상승함. 같은 해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1억 2420만 달러로 전년대비 43.3% 상승함.
- 현재 브라질 서민층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인터넷이 보급이 확대되면서 컴퓨터 수요 꾸준히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전자집적회로는 컴퓨터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부품으로 컴퓨터의 판매량과 직결되는데 브라질은 '10년 1,400만대 '11년에 1,530만대의 컴퓨터가 팔려 전자집적회로 수요 역시 증가함.
- 현재 말레이시아나 코스타리카로부터 수입되는 전자집적회로의 경우 주로 외국기업들이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임.

【 브라질의 전자집적회로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875	-	2,155	-	1,039	-
1	코스타리카	325	17.3	355	16.5	212	20.4
2	말레이시아	500	26.7	588	27.3	204	19.7
3	중국	380	20.2	343	15.9	152	14.6
4	대만	142	7.6	178	8.2	108	10.4
5	한국	87	4.6	124	5.8	80	7.7

자료원 : SECEX-Foreign Trade Secretariat

○ 선정사유

- 서민층 소득수준 향상,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인한 전자제품 구매량 증가
-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한 현지 생산량 증가

3	품목명	인쇄회로	(HS : 8534.00)
---	-----	------	----------------

○ 시장동향

- 브라질 인쇄회로 수입시장은 '11년 4억 8478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약 15.87% 증가함. '11년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7892만 달러로 전년대비 15.96% 상승.
- 인쇄회로의 경우 휴대전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노트북 등 거의 모든 디지털 가전기기의 핵심 부품임.
- 브라질 정부가 국산부품 의무 사용 정책을 펼치고 있어 다수기업이 브라질 현지에서 전자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경우가 증가함. 이에 따라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인쇄회로 수입도 증가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브라질 정부의 현지 부품 의무 사용 정책 실시로 인해 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전자제품 수요에 비해 현지 조달 가능한 부품에 한계가 있어 수입 부품의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브라질의 인쇄회로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18	-	485	-	241	-
1	중국	252	60.2	278	66.5	139	33.3
2	대만	59	14.1	76	18.2	38	9.1
3	한국	68	16.3	79	18.9	36	8.6
4	홍콩	7	1.7	7	1.8	5	1.2
5	태국	8	1.9	11	2.6	4	1.0

자료원 : SECEX-Foreign Trade Secretariat

○ 선정사유

- 서민층 생활수준 향상으로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구매량 증가하는 동시에 한국기업의 브라질 현지 공장 생산량 증대로 인쇄회로를 포함한 부품의 수요 역시 증가 추세임.

4	품목명	자동차 부품(새시 등)	(HS : 8708.99)
---	-----	--------------	----------------

○ 시장동향

- 브라질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은 '11년 11억 3242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02% 상승. '11년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3434만 달러로 전년대비 123.72% 상승함.
- 현재 브라질은 자동차 부품의 현지 조달을 위해 꾸준히 부품산업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품 전량을 현지에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브라질에 진출하여 있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 역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로 한국 자동차의 인기를 따라 한국산 자동차 부품 역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재 브라질에는 총 3,633,248대의 차가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한 부품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브라질의 자동차 부품(새시 등)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068	-	1,132	-	519	-
1	독일	236	22.1	215	18.9	82	15.8
2	이탈리아	120	11.2	131	11.5	52	9.9
3	일본	121	11.3	86	7.6	48	9.3
4	프랑스	86	8.0	98	8.6	43	8.2
5	태국	35	3.3	58	5.1	39	7.6
11	한국	15	1.4	34	3.0	22	4.3

자료원 : SECEX-Foreign Trade Secretariat

○ 선정사유

- 중산층 소득증가로 인한 한국산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은행 금리 인하로 차량 구매 시 대출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가 늘어나고 있음.
-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 부과 정책으로 최근에는 수출이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전망함.

5	품목명	기어박스	(HS : 8708.40)
---	-----	------	----------------

○ 시장동향

- 브라질 기어박스 수입시장은 '11년 17억 1209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약 14.98% 상승하였으며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224.51% 상승함.
- 현재 브라질은 기어박스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들의 현지 공급을 위해 꾸준히 부품 산업에 투자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량 현지 공급에는 어려움이 있어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
- 브라질에 진출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산 기어박스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한국 자동차가 브라질 시장에서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한국산 기어박스 역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기어박스는 차량 판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현재 브라질 기어박스 수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국가들임.

【 브라질의 기어박스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489	-	1,712	-	847	-
1	아르헨티나	392	26.4	380	22.2	167	19.7
2	일본	233	15.7	228	13.3	91	10.8
3	독일	149	10.0	195	11.4	91	10.7
4	미국	155	10.4	169	9.9	79	9.3
5	프랑스	91	6.1	117	6.8	65	7.7
6	한국	18	1.2	58	3.4	56	6.6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중산층 소득증가로 인한 한국산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은행 금리 인하로 차량 구매 시 대출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가 늘어나고 있음.
-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 부과 정책으로 최근에는 수출이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전망함.

6	품목명	휴대폰 부품	(HS : 8517.70)
---	-----	--------	----------------

○ 시장동향

- 브라질 휴대폰 부품 수입시장은 '11년 20억 4329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약 34.93%증가함.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 대비 76.50% 상승.
- 브라질은 최근 들어 휴대폰 부품 현지 생산 기반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지에서 전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
- 브라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생산 시 필요한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12년 5월 브라질에서 사용되고 있는 핸드폰 수는 2억 5,500만대로 인구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함.
- 한국기업들은 현지에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소득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여 브라질 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사용되는 상당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음.

【 브라질의 휴대폰 부품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514	-	2,043	-	1,025	-
1	중국	744	49.1	1,048	51.3	523	51.0
2	한국	257	17.0	454	22.2	246	26.8
3	말레이시아	77	5.1	72	3.5	37	3.6
4	멕시코	38	2.5	40	2.0	29	2.8
5	미국	91	6.0	70	3.4	29	2.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핸드폰 구매량 증가
- 스마트폰 가격 인하로 다수의 소비자들의 구형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핸드폰의 세대교체 현상” 증가.

7	품목명	위성수신기	(HS : 8529.90)
---	-----	-------	----------------

○ 시장동향

- 브라질 위성수신기 수입시장은 '11년 33억 4043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약 13,08%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대비 21.9% 증가
- 브라질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위성 방송 시청자가 대폭 늘어나 위성 수신기 수요가 대폭 증가함.
- 특히 런던 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 및 올림픽 등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디지털 TV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으며, 이와 함께 위성 방송 시청자도 급증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브라질 TV 시장은 월드컵, 올림픽으로 '10년에 1,300만대 '11년에 1,410만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스포츠 이벤트 특수를 누리고 있음. 특히 브라질에서는 2014년에 월드컵, 2016년에는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브라질의 위성수신기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954	-	3,340	-	1,579	-
1	중국	1,339	45.3	1,545	46.3	797	50.5
2	한국	889	30.1	1,085	32.5	552	35.0
3	대만	181	6.1	243	7.3	85	5.4
4	말레이시아	53	1.8	80	2.4	48	3.1
5	일본	192	6.5	194	5.8	26	1.6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올림픽, 월드컵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기인한 TV 수요 확대와 동시에 현지 TV 생산이 늘어나며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음.
- 또한, 중산층 증대 및 전체적인 소득 확대에 의한 생활 수준 향상으로 위성 방송 시청자가 증가하고 있음.

8	품목명	굴삭기	(HS : 8429.52)
---	-----	-----	----------------

○ 시장동향

- 브라질 굴삭기 수입시장은 '11년 5억 3716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약 17.8% 상승하였으며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대비 3.24% 상승.
- 2014년과 2016년에 개최될 브라질 월드컵, 올림픽으로 인해 스포츠 인프라 건설을 비롯하여, 각종 도로, 공항 등 교통 시설, 숙박 시설 등 건설 공사들이 진행되면서 굴삭기 수요가 대폭 증가.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재 굴삭기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는 한국으로 현지 수요 업체들로부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한국은 2위 일본보다 약 2배 더 많은 수출액을 기록함.

【 브라질의 굴삭기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56	-	537	-	303	-
1	미국	123	27.0	85	15.9	89	29.2
2	한국	174	38.2	180	33.5	83	27.5
3	독일	34	7.5	43	8.1	34	11.1
4	중국	32	7.0	65	12.1	30	9.9
5	일본	43	9.4	89	16.6	26	8.5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브라질 월드컵 및 올림픽으로 건설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품질을 인정 받고 있어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음.

9

품목명 **타이어(버스 및 화물차용)**

(HS : 4011.20)

○ 시장동향

- 브라질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수입시장은 '11년 6억 593만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약 29.47% 상승하였으며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대비 64.75% 상승.
- 현재 브라질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어 버스 이용객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차량 수요 또한 대폭 증가함.
- 또한 브라질 월드컵, 올림픽 인프라 건설 공사로 인해 화물차 수요가 대폭 증가. 이에 따라 버스와 화물차에 필요한 타이어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재 한국산 버스 및 화물 타이어 수입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제품에 대한 품질 인정과 가격 경쟁력, 신뢰도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 브라질의 타이어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68	-	606	-	237	-
1	한국	61	13.1	101	16.7	43	17.9
2	일본	44	9.4	71	11.6	36	15.3
3	중국	56	11.9	67	11.0	27	11.3
4	콜롬비아	38	8.1	41	6.8	14	5.9
5	아르헨티나	50	10.7	43	7.1	14	5.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ITS 추진으로 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른 타이어 구매량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월드컵, 올림픽으로 인해 급증한 건설 공사로 인해 화물차 타이어 구매량 증가 추세임.

10	품목명	테레프탈산과 그 염	(HS : 2917.36)
----	-----	------------	----------------

○ 시장동향

- 브라질 테레프탈산과 그 염의 수입시장은 '11년 5억 8902만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약 31.78% 상승함.
- 테레프탈산의 경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폴리에스테르)의 원료로써 그 사용도가 방대함
-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경제 호황을 누리움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류 소비도 대폭 증가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테레프탈산의 경우 멕시코 제품이 다량 수입되고 있으나 한국산 테레프탈산 역시 빠른 속도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향후 테레프탈산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어서 한국제품 수출 전망도 밝음.

【 브라질의 테레프탈산과 그 염의 수입동향 】

(단위: 백만불,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47	-	589	-	270	-
1	멕시코	276	61.7	368	62.5	240	89.2
2	한국	14	3.2	43	7.3	21	7.7
3	미국	115	25.8	107	18.1	5	1.8
4	대만	3	0.6	26	4.4	3	1.1
5	스페인	12	2.7	4	0.8	0.6	0.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선정사유

- 전 계층 소비자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의복 구매량 증가.
- 브라질 산업 전반적 성장으로 자동차 내장재, 커튼, 의류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원단 수요 증가.

3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메모리, 전자집적회로, 인쇄회로, 휴대폰 부품
 - (전시회) Eletronic America 참관(2013.4.1-5, 브라질 상파울루)
 - (KOTRA) 바이어 찾기, 조사대행,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을 신청하여 적합한 바이어와의 상담 사전 예약 필요(거래지원팀)
- 자동차 부품(새시 등), 기어박스
 - (전시회) 남미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 AUTOMECH 참관(2013.4.16-20, 브라질 상파울루)
 - (KOTRA) 2012 GM Brazil-Korea Autoparts Plaza 참가(2012.11.8-9, 브라질 상파울루, FTA사업팀)
바이어 찾기, 조사대행,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을 신청하여 적합한 바이어와의 상담 사전 예약 필요(거래지원팀)
- 위성수신기
 - (전시회) 위성방송 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시회 ABTA 참관 (2013. 7월 말, 브라질 상파울루)
 - (KOTRA) 바이어 찾기, 조사대행,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을 신청하여 적합한 바이어와의 상담 사전 예약 필요(거래지원팀)
- 굴삭기
 - (전시회) Transpoquip전시회 참관(2012.11.21-23, 브라질 상파울루) 및 M&T 전시회 참관(2015, 3년 주기 개최, 브라질 상파울루)
 - (KOTRA) 바이어 찾기, 조사대행,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을 신청하여 적합한 바이어와의 상담 사전 예약 필요(거래지원팀)
- 타이어
 - (전시회) Transpoquip전시회 참관(2012.11.21-23, 브라질 상파울루) 및 FENATRAN 전시회 참관(2013.10.28-11.1, 격년개최, 브라질 상파울루)
 - (KOTRA) 바이어 찾기, 조사대행,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을 신청하여 적합한 바이어와의 상담 사전 예약 필요(거래지원팀)

- 테레프탈산과 그 염
 - (전시회) 섬유산업 관련 기계 장비 및 섬유 원료 업체 전시회 Maquintex 참가업체 리스트 확보하여 마케팅에 활용(2012.8.20-23, 격년개최, 브라질 상파울루)
 - (KOTRA) 바이어 찾기, 조사대행,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을 신청하여 적합한 바이어와의 상담 사전 예약 필요(거래지원팀)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브라질 바이어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선 지속적인 전시회 참관 또는 참가가 필수적임.
- 자동차 부품군의 경우 신차 프로젝트 단계에 공급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성차업체들과 꾸준한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휴대폰 부품업체 들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휴대폰 업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시작단계부터 참가해야 공급기회 확보가 유리함.
- 위성수신기는 위성방송 사업자 별로 사용하는 모델이 상이하기 때문 사전에 반드시 충분한 정보 교환을 통해 브라질 바이어가 희망하는 제품 사양을 파악하여 수출기회를 모색
- 중장비의 경우, 브라질 바이어들이 주로 현지 업체를 통해 수입하고 있어 직접 수출은 어려운 편이고, 브라질 현지에 반드시 A/S 센터를 보유해야만 판매가 가능함.
-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제품도 덩달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 유의해야 함.
- 테레프탈산 제품의 경우, 브라질 주요 화섬업체와 접촉하여 수출 상담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ABIT(섬유협회)에서 발행하는 연감에 수록에 있는 업체 리스트 활용할 수 있음.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브라질 정부는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생산 시설 필요하며 A/S 센터 및 자체 유통망 구축이 관건임.
- 자동차 부품군의 경우, JAC, Chery 등 다수의 중국 자동차 기업이 브라질 현지 공장을 설립 중으로 이에 따른 관련 부품 업체들의 동반진출이 예상됨. 따라서 중국 제품을 능가하는 가격 경쟁력을 보유해야 함.
- 전기전자 부품시장은 중국을 비롯 다수의 공급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필수적임. 또한 부품 고장으로 수리나 교체 시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브라질 현지 A/S 시스템 구축 필요
- 위성수신기의 경우에는 위성방송사업자인 TVA, SKY 등과 직접 컨택하여 판매를 추진해 보는 동시에 전자부품, 방송장비 전문 수입상과 상담을 통해 대 브라질 수출을 모색해야함.
 - 위성 방송 사업자들은 직접 수입보다는 전문 업체를 통해 수입하여 문제 발생 시 생산업체와 연락할 필요 없이 수입업체가 수리, 부품 교체 등의 AS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음.
- 테레프탈산 제품의 경우,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브라질 현지에 물류 창고를 설치하여 신속한 공급 체계 구축 필요함.

□ 진출시 유의사항

- (일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입관세율 0~8%, 공업세 2~5%, 사회보장세 9.25%, 주유통세 18%(상과울루 주의 경우) 등이 부과되며 제품 사양에 따라 세율이 상이함.
- 컴퓨터 관련 부품은 저가 중국산 밀수 제품이 많아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함. 따라서 가격보다는 품질, A/S 등으로 승부해야 함.

- 자동차 부품군의 경우, 브라질 정부는 현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업세를 감면해주고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 65%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차후 현지 생산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통신 관련 기계 및 부품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선 ANATEL (정보통신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 버스 및 화물차 용 타이어 중 HS Code 4011.20.90제품의 경우,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동 조치는 2014년 6월 18일 만료 예정임.

3. 아르헨티나

(무역관명: 부에노스아이레스)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2011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3.4%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아르헨티나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9.2%	8.9%	3.4%

자료원: INDEC(통계청), IMF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수출액(백만 달러)	68,134	84,269	39,647
수입액(백만 달러)	56,502	73,922	32,311

자료원: INDEC(통계청)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자료에 의하면, 사전수입신고제(DJAI)가 시행된 2월부터 수입은 전년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출도 4월부터는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무역수지도 5월부터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함.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수출액(백만 달러)	909	1,081	484

자료원: KITA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총GDP(억달러)	3,699	4,476*	4,728*
1인당 GDP	9,092	10,896	11,453*
환율(달러:페소)	3.91	4.13	4.55
소비자물가상승률(%)	10.9	9.5	9.9
외환보유고	52,190	46,376	46,818
인구(백만명)	40.5	40.9	41.2

주 : *는 IMF 추정치, 자료원 : IMF,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수입규제가 심각해졌으며, 이로 인한 수요대비 공급 부족 현상으로 현지 물품 부족과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08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어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인상률을 10% 내외로 통제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정부발표보다 인플레이션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함.

아르헨티나 물가상승 동향

구 분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6월 기준)
정부발표	%	7.2	7.7	10.9	9.5	9.9
민간예측	%	23.5	15.0	25.8	22.8	25.6

자료원 : 정부발표-중앙은행, 민간예측-MIT

○ 금융부문

-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외환규제가 심해졌고, 이는 다시 암거래 환율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의 극심한 외환규제로 인해 수입 시 수입대금 송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지 진출 외국기업의 경우는 현지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르헨티나도 각종 보호주의 정책들로 인한 주변국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부의 해외 자금 조달이나 해외 투자자금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신차 및 중고 승용차(1,500CC- 3,000CC 이하) (8703.23)	3,326	85.9	4,132	24.2	2,145	13.3	91	288.6	173	90.7	150	125.7
2	LCD Panel (9013.80)	45	631.4	81	83.0	53	85.9	81	275.3	56	-31.5	36	-5.5
3	폴리에스테르 등 각종 화학수지 (3907.00)	214	26.4	287	34.2	132	-1.7	48	33.1	68	42.8	19	-21.3
4	위성수신기 (8529.90)	497	222.2	586	18.0	287	14.4	32	-4.0	66	107.9	17	-1.4
5	유입식 변압기 (10,000KVA초과) (8504.23)	250	60.9	276	10.7	122	3.5	0	-	11	-	13	22.0
6	아크릴의 중합체 (3906.00)	98	41.5	110	11.8	64	23.8	10	115.8	19	100.7	12	55.9
7	굴삭기 (8429.52)	92	182.6	131	42.1	38	-45.6	3	175.1	7	120.8	5	72.9
8	폴리에스테르섬유 (5503.20)	10	10.7	18	81.2	9	18.9	5	20.5	8	55.0	4	12.3
9	의료기기 (9018.00)	198	16.6	261	31.9	112	-7.4	8	100.1	11	41.0	4	-23.0
10	연선로프 및 케이블 (7312.10)	29	18.5	31	7.7	15	-3.4	7	20.1	7	4.3	4	-5.3

자료원 : 주재국 수입시장-NOSIS, 아국 수출동향-KITA무역통계

□ 10대 품목별 선정사유

1	품목명	승용차(1,500cc 초과 3,000cc 이하)	(HS : 8703.23)
---	-----	----------------------------	----------------

○ 시장동향

- 주재국 민간 관세통계 사이트인 NOSIS에 의하면 동 품목의 수입시장 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2,145백만 수준이며 전년대비 13.3%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아르헨티나에서 2012년 상반기에 판매된 441,762대의 승용차 중에, 현지 생산 공장이 없는 한국 현대차의 판매 대수는 고작 0.5%에 해당되는 2,024대에 불과함(현재 FIAT, FORD, GM, HONDA, IVECO, Mercedes-Benz, PSA Peugeot, Renault, Scania, Toyota, Volkswagen이 현지 생산 공장이 있음)
-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입차량은 주로 GM대우 및 Renault삼성의 한국공장 생산차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반기 수출증가는 GM차량 수입 증가에 기인함.

【 아르헨티나의 승용차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3,326	-	4,312	-	2,145	-
1	브라질	2,015	60.6	2,373	55.0	1,153	53.8
2	멕시코	616	18.5	829	19.2	381	17.8
3	한국	76	2.3	137	3.2	156	7.3
4	독일	248	7.5	229	5.3	147	6.9
5	일본	71	2.1	55	1.3	36	1.7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동 품목은 2012년 상반기 전년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수입규제를 고려하면 큰 의미를 갖고 있음. 또한,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부분 3,000cc이하 차량 구매가 일반적이어서 동 수요는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을 받더라도 지속될 것임.

2	품목명	LCD Panel	(HS : 9013.80)
---	-----	-----------	----------------

○ 시장동향

- 주재국 민간 관세통계 사이트인 NOSIS에 의하면 동 품목의 수입시장 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53백만 수준이며 전년대비 85.9%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동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이 KITA통계상에 한국의 수출규모는 US\$36백만으로 전년대비 5.5%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재국 통계사이트에는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규모가 US\$18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품목 특성상 상당량이 아르헨티나 주재국 수입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아르헨티나 특별 관세지역이자 전자제품 조립공장 밀집지역인 띠에라 델 푸에고 (Tierra del Fuego)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동 품목에 있어 아르헨티나 수입시장에서 저가의 중국산에 점차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으로 가격경쟁력과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아르헨티나의 LCD Panel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5	-	81	-	53	-
1	브라질	9	20.0	39	48.1	44	83.0
2	멕시코	20	44.4	23	28.3	6	11.3
3	한국	3	6.7	9	11.1	3	5.7
4	독일	9	20.	8	9.9	0.02	0.0
5	일본	0.05	0.1	1	1.2	0.006	0.0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아르헨티나 특별관세지역인 띠에라 델 푸에고 (Tierra del Fuego)에서 현지 조립생산을 하고 있어 동 품목의 수입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품목명	각종 플라스틱 수지	(HS : 3907.00)*
---	-----	------------	-----------------

* 폴리아세탈수지 · 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함)

. 폴리에테르(3907.20)/폴리카아보네이트(3907.40)/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3907.60) 포함

○ 시장동향

- 동 품목의 시장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132백만 수준이며 전년대비 1.7%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 동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KITA통계상에 한국의 수출규모는 US\$19백만으로 전년대비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재국 통계사이트에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US\$25백만으로 1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동 품목에 있어 미국산 및 중국산에 점차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으로 가격경쟁력과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아르헨티나의 플라스틱 수지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14	-	287	-	132	-
1	미국	61	28.5	78	27.2	40	30.3
2	한국	32	15.0	59	20.6	25	18.9
3	중국	36	16.8	46	16.0	22	16.7
4	브라질	33	15.4	48	16.7	21	15.9
5	대만	10	4.7	11	3.8	8	6.1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동 품목군 내에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품 5위이자 아르헨티나 수입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3907.60)가 포함되어 있음.

* 비록 현재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요 경쟁국인 중국, 대만, 인도, 태국과도 함께 동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음.

4	품목명	위성수신기	(HS : 8529.90)
---	-----	-------	----------------

○ 시장동향

- 동 품목의 시장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287백만 수준이며 전년대비 14.4%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동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KITA통계상에 한국의 수출규모는 US\$17백만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재국 통계사이트에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US\$46백만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동 품목에 있어서는 현재 저가 상품의 중국산이 수입 점유율이 1위이며, 한국산은 그 뒤를 잇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위성수신기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97	-	586	-	287	-
1 중국	226	45.5	350	59.7	176	61.3
2 한국	108	21.7	95	16.2	46	16.0
3 태국	66	13.3	40	6.8	19	6.6
4 말레이시아	6	1.2	18	3.1	17	5.9
5 일본	20	4.3	26	4.4	10	3.5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동 품목은 아르헨티나의 스마트폰 유입 및 휴대폰 3G 서비스 보급 본격화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현재 4G 서비스도 준비 중인 아르헨티나 주요 통신사들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2011년부터 아르헨티나 내에서 현지생산이 없는 기업의 핸드폰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애플사의 아이폰은 수입이 금지된 데에 비해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한국산 스마트폰이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어 한국산 위성수신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5	품목명	유입식의 변압기(용량 10,000KVA초과)	(HS : 8504.23)
---	-----	--------------------------	----------------

○ 시장동향

- 동 품목의 시장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122백만 수준이며 전년대비 3.5%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동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KITA통계상에 한국의 수출규모는 US\$13백만으로 전년대비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재국 통계사이트에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US\$9백만으로 전년대비 16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이 독보적인 수출국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유입식 변압기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7	-	29	-	9	-
1	한국	0	0.0	9	31.0	9	100.0
2	중국	10	21.3	12	41.4	0	0.0
3	브라질	32	68.1	5	6.8	0	0.0
4	북한	0	0.0	2	17.2	0	0.0
5	핀란드	0	0.0	1	3.4	0	0.0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동 품목은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국산의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로 볼 때, 동 품목에 있어 한국산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품목명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HS : 3906.00)
---	-----	------------------------	----------------

○ 시장동향

- 동 품목의 시장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64백만 수준이며 전년대비 23.8%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동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KITA통계상에 한국의 수출규모는 US\$12백만으로 전년대비 5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재국 통계사이트에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US\$10백만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6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미국산의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아크릴중합체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98	-	110	-	64	-
1	일본	6	6.1	7	6.4	19	29.7
2	미국	46	46.9	53	48.2	14	21.9
3	한국	12	12.2	12	10.9	10	15.6
4	브라질	7	7.1	11	10.0	6	9.4
5	우루과이	4	4.1	8	7.3	4	6.3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아르헨티나의 일차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며 수입의존도 또한 높은 품목임.
- 한국산의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로 볼 때, 동 품목에 있어 한국산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품목명	굴삭기	(HS : 8429.52)
---	-----	-----	----------------

○ 시장동향

- 동 품목의 시장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38백만 수준이며 전년대비 45.6%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 동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KITA통계상에 한국의 수출규모는 US\$5백만으로 전년대비 7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재국 통계사이트에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US\$12백만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2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한국산 굴삭기가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및 건설시장에 대한 외환규제로 인한 건설시장 성장 둔화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굴삭기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92	-	131	-	38	-
1	브라질	29	31.5	47	35.9	16	42.1
2	한국	22	23.9	31	23.7	12	31.6
3	일본	9	9.8	15	11.2	3	7.1
4	독일	14	15.2	11	8.4	3	6.7
5	미국	13	14.1	15	11.4	3	6.7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아르헨티나는 현재 일시적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와 건설시장에 대한 외환 규제로 인해 건설시장 성장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건설시장의 성장둔화가 아르헨티나 경제성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의 건설 분야에서의 규제가 다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영토가 넓고 현재 미개발 된 지역이 많아 추후에도 동 품목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8	품목명	폴리에스테르 섬유	(HS : 5503.20)
---	-----	-----------	----------------

○ 시장동향

- 동 품목의 시장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9백만 수준이며 전년대비 18.9%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동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KITA통계상에 한국의 수출규모는 US\$4백만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재국 통계사이트에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US\$4백만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2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한국산이 동 품목에 있어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도산이 점차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아르헨티나의 폴리에스테르 섬유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0	-	18	-	9	-
1 한국	5	53.2	8	43.6	4	46.2
2 인도	1	11.2	3	14.5	2	17.6
3 중국	1	7.4	3	15.6	1	14.6
4 콜롬비아	1	5.4	2	9.3	1	6.4
5 대만	1	7.0	1	6.9	0.3	3.5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아르헨티나의 섬유/원단/원사에 대한 수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통관이 되고 있어 수입통계 집계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한국산의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점유율이 1위라는 점을 볼 때, 동 품목에 있어 현지에서의 한국산의 경쟁력과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비공식으로 수입된 물량까지 포함한다면 그 정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9	품목명	의료기기	(HS : 9018.00)
---	-----	------	----------------

○ 시장동향

- 동 품목의 시장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38백만 수준이며 전년대비 45.6%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 동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KITA통계상에 한국의 수출규모는 US\$4백만으로 전년대비 2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재국 통계사이트에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US\$3백만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3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한국산이 현재까지는 수입시장의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품질은 미국산, 독일산 및 일본산이 비중이 높고, 저가 제품의 경우 중국산이 현지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의 의료기기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98	-	261	-	112	-
1	미국	56	28.3	65	24.9	29	25.9
2	중국	22	11.1	36	13.8	15	13.4
3	독일	21	10.6	26	10.0	11	9.8
4	일본	18	9.1	23	8.8	10	8.9
5	브라질	11	5.6	16	6.1	4	3.6
8	한국	6	3.0	10	3.8	3	2.7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의료기기의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수입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으로,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의 인증만 획득을 한다면 현지의 높은 수요로 인해 수출이 유망한 품목임.
- 현지 바이어들도 한국의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특히, X-ray, 심장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10	품목명	연선·로프 및 케이블(HS : 7312.10)
----	-----	---------------------------

○ 시장동향

- 동 품목의 시장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약 US\$15백만 수준 전년대비 3.4%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 동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KITA통계상에 한국의 수출규모는 US\$4백만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재국 통계사이트에는 한국의 수출규모가 US\$3백만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한국산이 동 품목에 있어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 품목은 2위 국가인 터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또한 아르헨티나 수입규제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동 품목은 수입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으로 분석됨.

【 아르헨티나의 연선·로프 및 케이블 수입동향 】

(단위 : US\$백만,%)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9	-	31	-	15	-
1	브라질	10	36.4	13	41.9	7	51.8
2	한국	6	20.4	6	19.4	3	20.6
3	터키	6	20.6	7	22.6	3	17.8
4	중국	3	8.9	2	6.5	1	5.4
5	이탈리아	0.6	2.0	0.3	1.0	0.4	2.7

자료원 : NOSIS

○ 선정사유

- 동 품목이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수입규제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점을 보아 현지의 전력난과 노후화된 송·배전 인프라의 재구축을 위해 현지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영토가 넓고 현재 미개발 된 지역이 많아 추후에도 건설시장이 다시 회복되면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자동차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수출확대 방안은 현지 조립공장 설립이 될 것이며, 현지 공장을 보유하여 제 3국 수출을 통한 수입쿼터를 보유한 GM과 Renault를 통한 한국산 GM대우 및 Renault삼성 자동차의 수출 확대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LCD Panel의 경우도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아르헨티나 특별관세 지역 띠에라 델 푸에고에서 Outsourcing을 통한 조립생산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을 통한 수출이 가장 원활할 것으로 분석됨.
- 폴리에테르/폴리카아보네이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현지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제품으로 현지 에이전트나 파트너를 통해 수입규제나 경쟁국의 추이 등의 현지 시장동향을 주시하여 필요시 발 빠른 대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찾기 서비스, 세일즈출장 지원 또는 지사화 서비스 활용 가능(거 래 지원팀)
 - 2012년 11월 초 아르헨티나를 방문 예정인 강남 무역사절단 활용 가능(중소기업협력팀)
- 위성수신기의 경우 아르헨티나 3대 통신사인 Telecom(Movistar)사, Personal사, Claro사 접촉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이 가장 유망함.
 - 바이어찾기 서비스, 세일즈출장 지원 또는 지사화 서비스 활용 가능(거 래 지원팀)
 - 2012년 11월 초 아르헨티나를 방문 예정인 강남 무역사절단 활용 가능(중소기업협력팀)
- 유입식의 변압기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관련 프로젝트 발주기관 접촉을 통한 입찰정보 확보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유지가 필요함.
 - OPS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현지 프로젝트 정보 입수 및 현지 인사 지속 관리 필요(프로젝트총괄팀)

- 아크릴의 중합체의 경우도 아르헨티나 수입쿼터 확보가 가능한 바이어 또는 에이전트 발굴을 통한 진출 필요.
 - 바이어찾기 서비스, 세일즈출장 지원 또는 지사화 서비스 활용 가능(거래 지원팀)
 - 2012년 11월 초 아르헨티나를 방문 예정인 강남 무역사절단 활용 가능(중소기업협력팀)
- 굴삭기의 경우는 2012년 10월 31일~11월 3일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건설 박람회(EXPOFEMATEC 2012)에 참가하여 거래선 발굴 필요.
 - 바이어찾기 서비스, 세일즈출장 지원 또는 지사화 서비스 활용 가능(거래 지원팀)
-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경우 현지 한인 교포들이 아르헨티나 의류 및 원단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아르헨티나 진출도 매우 유력함
 - 2012년 G-FAIR(10.17-20, 주력산업팀) 참가를 통해 아르헨티나 한인 상공회의소 및 OKTA에서 동 전시회 참관을 위해 방한 바이어들과의 면담 가능.
 - 2012년 11월 초 아르헨티나를 방문 예정인 강남 무역사절단 활용 가능(중소기업협력팀)
- 의료기기의 경우 현지 인증이 없는 경우 현지 식약청 인증을 담당해 줄 현지 에이전트 발굴이 우선임.
 -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2012년 9월 26일~28일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의료전시회(EXPO MEDICAL 2012) 참가 또는 참관을 통해 현지시장 동향 파악 및 바이어 발굴 필요.
 - 치과용품의 경우는 2012년 9월 5일~8일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치과용품 전시회(EXPODENT 2012) 참가 또는 참관을 통해 현지시장동향 파악 및 바이어 발굴 필요.
 - 바이어찾기 서비스, 세일즈출장 지원 또는 지사화 서비스 활용 가능(거래 지원팀)
 - 2012년 11월 초 아르헨티나를 방문 예정인 강남 무역사절단 활용 가능(중소기업협력팀)

- 연선/로프/케이블의 경우 대규모 수출의 경우는 현지 정부 입찰 프로젝트 참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소규모 수출의 경우에는 현지 바이어 또는 에이전트 발굴을 통한 진출이 효과적임.
- OPS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현지 프로젝트 정보 입수 및 현지 인사 지속 관리(프로젝트총괄팀)
- 바이어찾기 서비스, 세일즈출장 지원 또는 지사화 서비스 활용 가능(거래 지원팀)
- 2012년 11월 초 아르헨티나를 방문 예정인 강남 무역사절단 활용 가능(중소기업협력팀)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아르헨티나가 현재 극심한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파라과이나 우루과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을 통한 우회진출 전략 고려 필요.
- 반대로, 아르헨티나에 기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는 우루과이 파라과이 시장까지 함께 공략 필요
- 전략적으로 진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공략
 - 현재 아르헨티나 수입승인 우선순위는 특별 관세지역이자 제조공장 밀집 지역인 띠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필요 제품 및 부품, 현지 생산이 없는 제품, 설비 기자재, 현지 생산이 있는 품목 순으로 현지 생산 활동에 필요하지만 자국산이 없는 중간재 및 부품 수출이 가장 유리한 상황.
- 수입규제를 피할 수 있는 운송·통관 어려움 등의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 및 콘텐츠 수출 강화도 필요.
- KOTRA에서 운영중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
 - 현재 아르헨티나 운송·통관 어려움 및 행정적 절차 진행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KOTRA의 지원을 통한 수출시 발생하는 비용 최소화 가능
 - 또한, 제품선적건별로 득해야 하는 사전수입신고 승인 및 외화송금 승인, 통관지연 등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수요가 존재하는 물품의 1

회 선적 물량을 극대화하여 현지 공동물류센터 보관을 통한 현지 물품 공급 차질 예방 및 시장선점 기회로 활용가능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가격 경쟁력 및 수입규제 극복을 위해 현지 조립 생산기지 건설이 필요하며 현지 A/S 및 자체 유통망 구축 필요.
- 분명 아르헨티나는 현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리스크가 높은 국가이지만 이러한 시장경제의 왜곡으로 인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입이 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은 한 번 거래를 시작한 기업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기존 거래선을 꾸준히 유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바이어 발굴과 신뢰 구축이 중요함.

□ 진출시 유의사항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평균 수입관세율 14%, 통계세 0.5%, VAT 21%, 추가부가세 10%, 소득세 3%
 - 의료기기나, 자동차, 등 상당수의 품목에 있어서 별도의 식약청(ANMAT) 인증이나 사전수입허가(LNA) 필요
 - 2013년부터는 남미공동시장 평균 관세가 WTO 최대 허용치인 35%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사전수입신고제(DJAI)나 외환규제와 같은 수입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에서의 현지 제품 대비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현지 생산이 없는 제품 또는 높은 기술력 혹은 품질을 보유한 제품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아르헨티나에 직접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현지의 국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 투자보다는 합작투자나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 자금 회수나 수익을 아르헨티나에서 본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 현재의 외환규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유의해야 함.
- 2012년 극심했던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정책이 완화되어 2013년에는 전

년 대비 점차 경기회복과 수입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대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는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현지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 콜롬비아

(무역관명: 보고타)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콜롬비아 경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발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성장률은 5.9%를 기록함.
- 콜롬비아 경제 성장은 광업, 건설플랜트 산업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밖에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이 중심산업의 호황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콜롬비아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4.0%	5.9%	4.7%

자료원: IMF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콜롬비아 수출입 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5월
수출액(백만 달러)	39,553	56,509	27,027
수입액(백만 달러)	40,683	54,675	22,619

자료원: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수출액(백만 달러)	1,389	1,614	814

자료원: 관세청

한-콜롬비아 교역의 경우, 2010년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이후 2011년 사상 최대 교역액인 20억불을 기록.

○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총GDP(억달러)	2,872	3,284	3,787
1인당 GDP(달러)	6,312	7,132	8,127
환율(달러:페소)	1,914	1,943	1,784
소비자물가상승률(%)	2.3	3.4	3.5
외환보유고(백만달러)	28,077	31,010	36,526
인구(백만명)	45.5	46.1	46.6

자료원: IMF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선진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경제는 2009년 경기 둔화를 경험하였으나 2010년 4%대로 빠르게 회복
- 내수 소비 역시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2년 1분기 기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매출은 전년대비 9.4% 증가
- 일반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재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2011~2012년 1분기까지의 판매량이 이전 기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문

-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2008년 평균 9.7%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2012.8월 현재 5.15%까지 하향 조정한 상태임. 최근 유럽발 위기에 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정부는 금리를 5%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콜롬비아 외환시장도 유럽 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2012.8월 현재 미 달러당 콜롬비아 페소 환율은 1,790 페소 수준을 유지.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불,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5		2010		2011		2012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부품 (8708.99)	101	31.2	128	26.7	47	-7.4	332	65.2	318	-4.4	166	-12.2
2	타이어 (4011.10/4011.20)	356	39.1	510	56.4	225	21.3	29	93.3	43	49.8	32.4	31.0
3	건설용드릴 (8430.49)	180	20.0	203	12.5	199	48.8	0.3	41.1	0	0	0	0
4	인쇄기기 (8443.99)	113	16.5	120	6.6	57	112	1.2	-31.2	1.0	-17.7	0.2	-67.6
5	철강관 (7225.30)	177	505.7	167	-5.5	44	114	0	0	0	0	0	0
6	의료기기 (9018.90)	140	22.8	190	35.9	69	117	1.9	-40.6	1.8	-3.3	1.3	87.2
7	금속 파이프 (7304.29)	196	47.4	316	61.3	123	90	0	0	0	0	0	0
8	폴리에틸렌 (390110,20,90)	416	28.4	503	21.0	62	106	19.5	7.7	31.5	61.5	13.8	-13.7
9	불도저 (8429.52)	280	-5.1	383	36.5	199	149	26.3	1,890	19.5	-25.9	22.8	89.2
10	건설장비부품 (8431.43)	83	38.3	154	86.2	67	107	0.02	-	0.03	42.7	0.02	54.9

자료원 :SICEX, 콜롬비아관세청, WTA

□ 10대 품목별 선정사유

1	품목명	자동차 부품	(HS : 8708.99)
---	-----	--------	----------------

○ 시장동향

-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은 2011년 기준 약 5억불 규모로 전년 대비 34.4% 증가하였음. 미국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공장이 가동 중임에 따라 CKD 형태의 수입 및 A/S용 부품이 병행 수입되는 구조

○ 경쟁 및 수입동향

-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브라질 등이며 현지 생산 비중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0~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미국산 자동차 부품은 주로 현지 조립공장 납품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의 경우 중국계 자동차 메이커의 현지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동반 증가

【 콜롬비아의 자동차 부품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00,125	100	145,343	100	66,968	100
1	일본	17,106	17.7	21,941	15.1	10,751	16.0
2	미국	16,017	16.0	20,148	13.9	10,470	15.6
3	한국	10,712	10.7	12,936	8.9	7,280	10.9
4	중국	7,738	7.7	13,892	9.6	5,919	8.8
5	브라질	1,040	7.0	8,762	6.0	4,457	6.6

자료원 : SICEX

○ 선정사유

- 경기호황에 따른 '마이 카' 붐이 본격화되면서 중산층의 자가용 구매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그 결과 완제품 수입 수요, 현지 생산 수요 증가가 A/S 시장 규모 확대로 이어져 수입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
- 향후 콜롬비아 경제 전망이 매우 긍정적임에 따라 당분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2	품목명	타이어	(HS : 4011.10, 4011.20)
---	-----	-----	-------------------------

○ 시장동향

- 콜롬비아 타이어 시장은 자동차 보유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대중교통 현대화, 국가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버스, 화물차 수요 증가가 대형 타이어 수요를 견인하는 상황.

○ 경쟁 및 수입동향

- 콜롬비아 타이어 시장은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의 비중이 높으며 콜롬비아 내수 생산 규모도 전체 수입시장의 9% 수준에 달함.
- 한국산 제품은 2009년 이후 수입이 지속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총 수입액은 45백만불, 전체 수입순위 6위에 랭크됨.

【콜롬비아의 타이어 수입동향】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45,358	-	187,908	-	81,661	-
1	중국	43,180	29.7	59,263	31.5	24,327	29.8
2	에콰도르	10,709	7.4	15,522	8.3	6,444	7.9
3	한국	9,558	6.6	13,969	7.4	5,873	7.2
4	브라질	12,318	8.5	18,113	9.6	4,397	5.4
5	미국	59,278	4.0	6,971	3.7	3,825	4.7

자료원 : SICEX

○ 선정사유

- 자가용 구매 확대, 대중교통 현대화 지속, 건설플랜트 호황, 내수 증가에 따른 유통망 확대 등 해당 품목 시장에 호재가 다수 존재함.
- 특히 육로를 제외한 철도 및 기타 국내 운송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속된다는 점은 콜롬비아 대형 타이어 수요 확대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내수 생산으로는 시장 전체 수요를 커버하기 역부족임에 따라 수입 수요는 당분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품목명	건설용 드릴	(HS : 8430.49)
---	-----	--------	----------------

○ 시장동향

- 콜롬비아 건설장비 시장은 대대적인 개발 붐과 함께 호황기를 누리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매우 밝은 상황.
-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 기반산업은 물론 광업, 석유화학 등 산업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계획됨에 따라 건설장비 시장 성장이 예상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재 콜롬비아 건설기계 수입시장은 미국, 캐나다, 중국의 비중이 높으며 한국산 수입은 전무한 상황.
-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60%에 달하고 있으며 뒤로 캐나다(21.2%), 중국(8.1%) 등임. 그 밖에도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기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콜롬비아의 건설용 드릴 수입동향】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72,341	-	1,961,866	-	111,746	-
1	미국	97,626	56.6	116,087	59.2	59,581	53.3
2	중국	31,480	18.3	16,301	8.3	24,279	21.7
3	캐나다	10,629	6.2	42,190	21.5	12,610	11.3
4	쿠바	0	0.0	0	0.0	11,031	9.9
5	스위스	301	0.2	1,226	0.6	975	0.9
16	한국	87	0.05	317	0.2	103	0.1

자료원 : SICEX

○ 선정사유

- 콜롬비아 건설플랜트 수요 증가에 따라 건설장비 수입이 다양화 및 다각화될 전망이나 우리 기업의 참여는 아직 부족한 상황.
- 그러나 한국산 건설장비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품질 및 가격 면에서 콜롬비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 FTA 발효 및 관세 인하 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 확보 차원에서의 진출이 필요.

4	품목명	인쇄기기	(HS : 8443.99)
---	-----	------	----------------

○ 시장동향

- 콜롬비아 인쇄기기 시장은 가정 및 사무용 인쇄기기와 산업용 인쇄기기 시장 모두 호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가정용 인쇄기기의 경우 컴퓨터, 인터넷 보급 확대와 동반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용 인쇄기기는 내수시장 호황에 따른 각 기업의 마케팅 전략 강화가 수요를 촉발하는 것으로 보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인쇄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스위스(15%), 미국(13%) 등의 점유율이 높은 편임.

【콜롬비아의 인쇄기기 수입동향】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08,770	-	115,729	-	54,688	-
1	중국	12,517	11.5	27,179	23.5	17,589	32.2
2	일본	5,771	5.3	26,928	23.3	16,218	29.7
3	싱가폴	0	0.0	11,861	10.3	9,527	17.4
4	미국	22,830	20.1	14,962	12.9	5,354	9.8
5	멕시코	4,100	3.8	1,867	1.6	1,465	2.7
9	한국	1,582	1.5	1,692	1.5	361	0.7

자료원 : SICEX

○ 선정사유

- 가정 및 사무용 인쇄기기의 경우, 한국이 후발 주자임에 따라 일본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단순 제품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중국공장 생산제품의 비중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
- 그러나 산업용 제품의 경우 현지 제조업 및 유통업 호황에 따라 틈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활용한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한-콜롬비아 FTA 발효 시 관세 혜택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경쟁력 강화 및 이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5	품목명	철강판(Flat-Rolled Ally Steel)	(HS : 7255.30)
---	-----	-----------------------------	----------------

○ 시장동향

- 콜롬비아 철강판 시장의 수요 확대는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석유화학 분야의 수요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밖에 일반 건설 분야 수요 증가도 철강판 수입 증가를 견인.

○ 경쟁 및 수입동향

- 콜롬비아 철강판(725530류) 수입시장은 브라질의 점유율이 45%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일본(26%), 멕시코(21%) 수준임. 한국산의 경우 2010년 250만불 규모로 수입된 바 있으나 2011년 수입은 전무한 상황
- 일본, 멕시코산 제품 역시 각각 35%와 33% 수입 감소율을 기록하며 해당 제품 시장이 브라질 과점 체제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

【콜롬비아의 철강판 수입동향】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64,900	-	158,999	-	43,909	-
1	일본	61,305	37.1	40,533	25.5	22,799	51.9
2	브라질	23,951	14.5	71,280	44.8	18,780	42.8
3	러시아	15,113	9.2	5,381	3.4	2,096	4.8
4	멕시코	51,391	31.2	35,159	22.1	234	0.5
7	한국	2,361	1.4	0	0.0	0	0.0

자료원 : SICEX

○ 선정사유

- 브라질 제품의 시장 잠식이 심화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철강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품질 수준에서는 한국산이 단연 앞서있으나 가격 및 납품기한이 최대 약점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할 경우 우리 제품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6	품목명	의료기기	(HS :9018.90)
---	-----	------	---------------

○ 시장동향

- 콜롬비아는 중남미 의료 선진국이기에는 하나 의료 시설 면에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의료 환경 개선,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경쟁 및 수입동향

- 콜롬비아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의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으며 그 뒤로 독일산 제품의 비중도 17% 수준임.
- 그 밖에 멕시코, 스위스, 프랑스 등도 주요 수입 대상국이나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침.

【콜롬비아의 의료기기 수입동향】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35,679	-	184,220	-	81,790	-
1	미국	43,554	32.1	52,419	28.4	22,325	27.3
2	싱가폴	3,171	2.3	10,904	5.9	12,217	14.9
3	독일	18,149	13.4	31,716	17.2	7,328	8.9
4	중국	11,310	8.3	14,336	7.8	5,737	7.0
5	멕시코	9,079	6.7	12,352	6.7	4,904	6.0
20	한국	0	0.0	1,212	0.7	441	0.5

자료원 : SICEX

○ 선정사유

- 콜롬비아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의료 분야에 대한 개혁도 진행 중에 있음.
- 그 결과 정부의 공공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기 현대화를 위한 조달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 분야의 투자 증가도 기대됨.
- 이에 따라 콜롬비아 의료기기 수입 시장 확대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제품 위주의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참고: 콜롬비아는 까다로운 의료기기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함.

7	품목명	금속파이프	(HS :7304.29)
---	-----	-------	---------------

○ 시장동향

- 콜롬비아 파이프 제품은 대부분 원유, 가스 생산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일반 건설 부문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또한 콜롬비아 정부가 최대 수출 품목인 원유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신규 인프라 건설, 기존 인프라 환경 개선 등을 추진 중임에 따라 당분간 수요 확대가 예상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해당 품목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중국, 미국 등이며 멕시코의 시장점유율이 44%로 가장 높은 상황.
- 중국산의 경우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수입증가율은 76%에 달하는데 반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전무한 상황임.

【콜롬비아의 금속파이프 수입동향】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82,175	-	298,730	-	123,146	-
1	중국	49,734	27.3	91,539	30.6	39,549	32.1
2	멕시코	73,090	40.1	134,922	45.2	36,872	29.9
3	브라질	7,286	4.0	8,695	2.9	11,536	9.4
4	미국	14,530	8.0	12,474	4.2	9,645	7.8
5	일본	49,475	2.7	6,762	2.3	8,259	6.7

자료원 : SICEX, (대 한국 수입 없음)

○ 선정사유

- 콜롬비아 최대 산업 중 하나인 원유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거래선 확보 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분야.
- 또한 세계 자원수요 증가세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콜롬비아 현지 생산시설 확충, 신규 생산기지 건설 등의 프로젝트도 기대.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현지시장 진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품목명	폴리에틸렌	(HS :3901.10,20,90)
---	-----	-------	---------------------

○ 시장동향

- 콜롬비아는 남미지역 석유화학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이나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최근 내수 호황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식품, 유통 분야는 물론 건설 플랜트 분야에서도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경쟁 및 수입동향

- 콜롬비아 폴리에틸렌 수입시장은 미국, 브라질, 한국이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미국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50%에 달함.
-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2011년 기준 33백만불 수준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여 상위 3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콜롬비아의 폴리에틸렌 수입동향】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382,560	-	465,628	-	214,972	-
1	미국	227,370	59.4	238,282	51.2	106,926	49.7
2	브라질	44,358	11.6	51,639	11.1	26,408	12.3
3	한국	20,868	5.4	29,765	6.4	15,349	7.1
4	사우디	12,992	3.4	27,951	6.0	15,309	7.1
5	캐나다	13,015	3.4	21,579	4.6	11,424	5.3

자료원 : SICEX

○ 선정사유

- 국내 소비시장 확대, 건설 수요 증가 등은 폴리에틸렌 제품 수요의 주요 원동력으로 제품의 용도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중임.
- 한국산 제품 수입이 금액기준 3위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나 미국산 대비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수요 확대를 대비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상황.
- 또한 한-콜롬비아 FTA 발효를 대비해 한국산 제품 및 관세인하에 대한 현지 업계 홍보 및 마케팅 강화가 필요함.

9	품목명	불도저	(HS :842952)
---	-----	-----	--------------

○ 시장동향

- 콜롬비아 건설플랜트 시장 호황에 따라 건설장비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선 역시 다양화 되는 추세임.
- 콜롬비아 건설플랜트 호황을 견인하는 분야는 건설업, 광업, 석유화학 등이며 장기적으로 도시 재개발, 신규 빌딩건설, 주택개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 전망도 밝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해당 건설장비 시장은 미국, 일본, 독일이 전체 수입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음. 2010년까지 미국은 콜롬비아 시장에서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2011년 기준 점유율은 32%로 감소

【콜롬비아의 불도저 수입동향】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64,902	-	362,003	-	198,605	-
1	미국	141,384	53.4	116,046	32.1	63,675	32.1
2	일본	62,364	23.5	96,567	26.7	49,648	25.0
3	독일	11,068	4.2	42,953	11.9	37,772	19.0
4	중국	2,657	1.0	8,354	2.3	11,042	5.6
5	브라질	18,199	6.9	33,433	9.2	10,310	5.2
6	한국	18,613	7.0	27,985	7.7	8,958	4.5

자료원 : SICEX

○ 선정사유

- 건설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현지 관련 업계의 수입 확대가 확실히 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 위주로 마케팅 전략에 따라 시장 진출 및 확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 수입국인 미국, 일본, 독일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	품목명	건설장비 부품	(HS :843143)
----	-----	---------	--------------

○ 시장동향

- 건설플랜트 분야 호황에 따른 건설장비 수요 증가는 자연스럽게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수요 증가는 수입 통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해당 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5억불을 기록하였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콜롬비아 건설장비 부품시장은 미국이 시장점유율 53%로 최대 수입대 상국이기에는 하나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콜롬비아 시장에서 해당 제품은 선진국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태리 등의 비중이 전체 시장의 72%를 차지(한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0.07%로 매우 낮은 수준)

【콜롬비아의 건설장비부품 수입동향】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78,979	-	147,934	-	67,463	-
1	미국	43,791	55.4	78,795	53.3	37,611	55.7
2	캐나다	6,990	8.8	12,955	8.8	8,208	12.2
3	아르헨티나	6,242	7.9	13,977	9.4	3,984	5.9
4	중국	4,023	5.1	10,905	7.4	3,795	5.6
5	독일	4,415	5.6	6,413	4.3	3,226	4.8

자료원 : SICEX, (대 한국 수입 없음)

○ 선정사유

- 콜롬비아 건설장비 및 관련 부품시장은 아직 우리기업의 미개척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기적으로 건설분야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수입유통업체의 거래선 다양화가 예상되며 경쟁력을 갖춘 우리 제품 진출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됨.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건설장비**의 경우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확보, 주요 업체와의 네트워킹이 중요함에 따라 현지 전시회 참가를 통한 마케팅이 진출 이전 또는 진출 초기에 적합한 마케팅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지 건설장비 관련 대표 전시회는 없으나 격년제로 개최되는 콜롬비아 광업전시회(www.mineriabogota-colombia.com, '13, 콜롬비아, 보고타)를 통해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부품, 폴리에틸렌** 등의 경우 조사대행-사절단-지사화 등의 단계를 거친다면 현지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플라스틱** 분야의 경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문 전시회 Colombiaplast ('12.10.1-5, 보고타, www.colombiaplast.com)에 참가해 현지 시장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참고로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 전 바이어 찾기 사전조사대행 혹은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신청으로 적정 바이어와의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효과적임.
- 그 밖에 **의료기기**의 경우 현지 인증제도가 매우 까다로움에 따라 유력 파트너와의 거래관계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진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조사대행 및 지사화 사업을 통한 장기적 시장 진출 전략 추진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콜롬비아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어 모든 분야에서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라 할 수 있음.

- 시장규모 및 인구에 비해 아직 소수 업체의 제한적인 소비층에 대한 마케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틈새시장 발굴 및 신시장 개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장기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과 중국의 진출 확대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등 역내 국가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 강화는 우리나라에 위협적이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분야 및 품목 위주로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할 경우 현지 기업과의 JV, 공동 투자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아직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관계로 일부 계층 시장을 제외하고는 100%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임.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한국산 제품 보다는 브라질, 중국산 제품이 득세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 및 EU 제품이 여전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듯이 한국산 제품 역시 주력 분야 선정 및 공략이 필요함.
- 최근 한국기업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 확대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한국기업의 활약이 기대됨.
- 다만 콜롬비아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유통업체와의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콜롬비아를 활용한 중남미 전체 시장 진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진출 시 유의사항

- (관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최저 5%~최고 35%까지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관세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세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거래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될 경우 수혜 품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지 산업과의 상충되는 분야에 대한 관세는 중장기 단계적 인하전망
- 이에 따라 품목에 따라 즉각적인 FTA 효과를 마케팅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어 필요가 있음.
- (인증) 콜롬비아는 매우 까다로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보건·전기기계 등은 사전 인증 취득이 필수임.
 - 일반적으로 UL, CE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인증취득이 수월한 편이나 장기 거래를 위해서는 콜롬비아 국내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또한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바 수출 제품의 인증 요구 여부확인 및 사전 인증 신청이 바람직함.
- (가격)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으로 가격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나 현지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가격보다는 품질을 먼저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한국산의 경우 가격은 조금 높으나 품질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중국산의 높은 불량률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한국 및 일본산 제품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
 - 이에 따라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보다는 객관적인 품질을 토대로 한 마케팅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됨.

5. 베네수엘라

(무역관명:카라카스)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현황과 전망)

- 2008-2010년 3년간 베네수엘라 경제는 하락세 기록한 후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12년에는 3%이상 성장 예상
- 2011년 세계 경제회복세와 고유가 지속으로 4% 성장하였으며 2012년은 10월 7일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서민주택건설 등 정부지출이 10%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 및 에너지 분야 등 중심으로 3.6%이상 증가가 예상

【 최근 3년간 베네수엘라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1.4%	4.0%	3.6%

자료원: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IMF, EIU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베네수엘라 수출입 동향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수출액(백만 달러)	71,086	65,786	69,709
수입액(백만 달러)	41,441	38,613	38,074

자료원: 대외무역은행(BANCOEX), 중앙은행(BCV)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수출액(백만 달러)	644	615	324

자료원: 무역협회

2011년도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수출액은 615백만불로 전년 대비 4.5%감소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수출은 297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3.4%증가함. 2011년 실적의 감소는 2010.12월 현대중공업발전기 1억불 수출(통계산업)에 따른 2010년 실적급증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큼

○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예상)
총GDP(억불)	3,261	2,424	3,088
1인당 GDP(달러)	11,500	7,388	10,612
환율(달러:볼리바르)	2.15	2.6/4.3	4.3
소비자물가상승률(%)	25.1%	27.2%	27.8%
외환보유고(백만달러)	35,000	29,621	30,933
인구(백만명)	28.2	28.6	29.1

자료원 : 중앙은행, 무역은행, EIU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2012년 1분기 베네수엘라는 5.6% 성장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4.9% 높은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서민주택건설” 프로젝트 등 건설부문이 1분기 중 29.6%성장하여 전체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제조업은 이러한 건설부분 성장(특히 시멘트)에 힘입어 2%성장.
- 정부 구매확대로 내수시장이 16.3%가 성장하였으며 민간소비는 5.7% 성장함. 이러한 성장은 10월 7일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오일머니 지출로 인한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더라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금융부문

- 현(現) 차베스 정부는 환율 페그(Peg)제를 적용해, 공식(CADIVI)환율과 외환거래시스템(SITME)환율만을 인정하고 있음. 공식(CADIVI)환율은 달러당 Bs.4.3이나 정부 지출 증대에 따른 볼리바르(Bs.) 화폐의 유동성증가로 현지 화폐가치가 하락하자, 암시장 거래 활성화되어 2012년 7월 달러당 Bs.9.0-9.2으로 거래됨.
-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국가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어 금융위기에 따른 별다른 변화는 없음

나. 3대 수출유망품목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불, %)

순 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	102.3	81.4	87.8	-14.2	20.6	-54.5	3.96	44.1	4.2	6.1	0.18	-91.6
2	전력용변압기 (8504.34)	40.9	927	16.2	-60.4	5.9	59.5	0.222	-52.1	0.212	-4.1	0.220	121.1
3	지게차 (8427.20)	32.4	-55.2	37.1	14.8	26.8	129	0.124	-93.8	1.088	778.7	3.342	413.7

(자료원 : 베네수엘라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3대 품목별 선정사유

1	품목명	초음파 영상진단기(HS : 9018.12)
---	-----	-------------------------

○ 시장동향

- 주재국에는 진단용 초음파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에서 필요한 수요전량을 수입에 의존함.
- 수입시장규모는 2010년 1억불을 넘어선 이후 2011년에는 87.8백만불로 다소 감소하였음. 2012년 상반기는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수입용 외환배정을 지연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시장이 정상화 된다면 수요도 바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경쟁 및 수입동향

- 미국 Chattanooga가 시장의 65% 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주재국 정부는 중국 Mindray, 브라질의 Carci 제품을 직수입함. 한국의 Medison, 일본의 Hitachi 제품이 품질, 디자인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 한국산으로는 주로 메디슨 제품이 오래전부터 진출하여 있으며 정부 승인 하에 수입된 400만불 상당의 제품 외에 마이애미 등지로부터 직접 수입된 것을 포함하면 수입규모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됨

【 베네수엘라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02,259	100	87,785	100	20,582	100
1	미국	43,394	42.4	31,455	35.8	8,566	41.6
2	중국	36,218	35.4	31,413	35.7	6,352	30.9
3	파나마	4,081	3.9	10,100	11.5	957	4.6
4	한국	7,107	6.9	6,496	7.4	1,223	5.9
5	멕시코	484	0.5	2,099	2.4	0	0

자료원 : 베네수엘라 통계청(INE), * 순위는 2011년 기준

○ 선정사유

- 베네수엘라는 출산율이 매우 높고 초음파 촬영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한국산 제품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출하여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음

2	품목명	전력용 변압기	(HS : 8504.34)
---	-----	---------	----------------

○ 시장동향

- 상기 코드는 용량 500KVA초과 변압기로 수입규모는 지속 상승하고 있음. 베네수엘라 정부는 낙후된 발전, 송전시설 교체를 위해 전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최근에는 중국산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한국산은 프로젝트 위주로 중대형 변압기가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 베네수엘라의 전력용 변압기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0,894	100	16,212	100	5,870	100
1 포르투갈	15,912	37.1	0	0	0	0
2 스페인	12,924	31.6	0.13	0	0	0
3 한국	5,367	13.1	107	0.7	0	0
4 미국	3,646	8.9	2,842	17.5	2,510	42.6
5 아르헨티나	807	2.0	1,636	10.1	82	1.4

자료원 : 베네수엘라 통계청(INE), * 순위는 2010년 기준

주 : 프로젝트 수주여부에 따라 국별 수입액 통계변화가 심함

○ 선정사유

- 한국산 중대형 변압기가 인지도가 높고 기진출한 제품에 대한 AS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지가 좋음. 프로젝트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인 관계로 파트너 선정과 프로젝트 발굴 및 Follow-Up이 진출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음

3	품목명	지게차	(HS : 8427.20)
---	-----	-----	----------------

○ 시장동향

- 주재국에는 지게차를 제조하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에서 필요한 수요전량을 수입에 의존함.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서민주택건설,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체판매의 절반이상을 중고지게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700-1000대 정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경쟁 및 수입동향

- Hyster, Clark 등 미국산제품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으며 브랜드별로는 토요타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음(35%)

【 베네수엘라의 지게차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32,436	100	37,120	100	26,813	100
1 미국	16,887	52.1	20,596	55.5	12,320	45.9
2 중국	4,015	12.4	6,142	16.5	6,673	24.9
3 일본	7,551	23.3	2,234	6.0	886	3.3
4 파나마	835	2.6	3,104	8.3	1,225	4.6
5 한국	621	1.9	2,686	7.2	4,317	16.1

자료원 : 베네수엘라 통계청(INE), * 순위는 2011년 기준

미국(55.5%)이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중국의 차관을 활용한 중국산 비중도 크게 증가함(16.5%). 이어서 일본(6.0%), 파나마(8.3%), 한국(7.2%)순임.

○ 선정사유

- 정부의 건설 및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한국산 디젤, 전기 지게차의 판매도 서비스망만 잘 구축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초음파 영상진단기

- 현지 의료영상 진단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력바이어들을 Global Bio & Medical Forum 2013(2013.6월 잠정, 지식서비스사업단)에 파견
 - * 행사 1개월 이전 국내업체와의 Match-Making으로 방한시 최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
- 개별 사이버상담 : 현지 바이어 요청 시 국내 적격공급업체를 발굴하여 수시로 개별 사이버 상담추진

○ 전력용 변압기

- 2012.10.31-11.3일간 주재국 방문예정인 “중남미 전력기자재 로드쇼”(주력산업팀)에 참가, 현지 기업들과의 상담 추진
- 중남미 전력기자재 로드쇼 참가업체중 전력용 변압기업체의 현지 전력기자재 전시회인 EXPOELEC(2012.10.31-11.3) 참여 유도

○ 지게차

- 베네수엘라 건축전시회(Construexpo2013: 2013.4월)에 참가
- 세일즈 출장 서비스 활용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국가로 외환관리정책 등 주요정책이 수시로 변하므로 현지무역관 및 공관을 통해 정책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오랫동안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 및 정부구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 시장특성상 진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적정 관련분야 파트너 발굴 및 인맥 구축이 성공의 관건이 됨.

-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 뿐만 아니라 외환배정 등 정책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조립 생산기지 건설이 필수적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현지 업체와 합작투자가 바람직함.
- 베네수엘라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망이 형편없고 부품조달이 쉽지 않아 제품 판매 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음. 하지만 진출 초기에 A/S망 구축을 잘못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A/S에 강점을 가진 파트너를 선정하여 A/S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중남미 여타국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소득에 비해 소비성향이 매우 높고(2배) 신제품, 신기술 및 디자인에 환호하는 성향이 있음.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에 덜 민감한 편이어서 한국 상품 진출이 유리한 면이 있음.

□ 진출 시 유의사항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수입제품의 FOB가격 기준 수입관세율 0~20%, VAT 12%, 통관수수료 1% 수준임. 일부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주재국 상공부(MILCO)의 발행하는 현지 미생산 및 불충분생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용 외환을 요청하여야 외환배정이 됨 (증명서 발급에 약 6개월 소요). 또한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수입용 외환 배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입대금결제 외환조달방식
 - 현재 수출입업자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임. 베네수엘라 수입업체가 대금결제를 위한 외환조달방식으로는 ‘Cadivi’(베네수엘라 외환관리위원회/공정환율에 의한 대외송금 가능, 2003.2월부터 시행, 적용환율 Bs4.3/US\$1)의 승인을 통한 공급 방식(가장 유리)과 ‘SITME’(외환공채거래시스템/Sistema de Transacciones con Títulos en Moneda Extranjera, 2010.6.14부터 시행, 적용환율 Bs5.3/US\$1)에 의한 방식이 있음. 이외에도 상기 2가지 방식상의 승인 절차상 관료주의로 장기간(3-6개월)소요되고 실지 신청금액대비 소액만 승인하여 주는 관계로 시장환율 (Bs9.0/US\$1)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음.

6. 칠레

(무역관명: 산티아고)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최근 5년 칠레 GDP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약 4%의 안정적 성장을 기록했는데 특히 2011년 6.2%로 고성장 기록.

【 최근 3년간 칠레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5.2%	6.2%	4.3%

자료원: 칠레 중앙은행, EIU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칠레 수출입 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3월
수출액(백만 달러)	67,425	80,765	20,438
수입액(백만 달러)	52,559	66,207	16,624

자료원: WTA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수출액(백만 달러)	2,947	2,381	1,392

자료원: 무역협회

2012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대칠레 수출은 소폭상승, 수입은 소폭하락함. 2012 1분기 기준 칠레의 대한국 수출비중은 4위(6.68)%, 수입비중은 6위(3.63%)를 차지함

○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총GDP(억달러)	2,163	2,486	2,593
1인당 GDP(달러)	11,587	12,805	13,355
환율(달러:페소)	510.38	483.36	497.09
소비자물가상승률(%)	3.0%	4.4%	3.4%
외환보유고(억달러)	278	419	424
인구(백만명)	17.1	17.2	17.4

자료원 : EIU, 칠레 통계청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광산 및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확대, 지진복구 프로젝트 지속 추진, 세계 59개국과의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농산물 수출 확대 등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중국의 구리 수요 감소에 따른 연간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 국제가격 하락 전망(파운드 당 US\$ 3.5), 유럽 발 경제 위기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2012년 경제성장률은 4.3%로 둔화될 전망
- 칠레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삼아 물가관리 목표치 (3%±1%) 달성을 위해 금리정책을 펴고 있어 2012년 물가상승률은 3.4%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

○ 금융부문

- 페소화의 대미환율은 국제원자재의 수요와 가격, 기준금리 등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 칠레 중앙은행이 발표한 2012. 6월 거시경제 전망에 의하면 향후 페소화의 대미환율은 500페소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주식시장의 경우 주요 40개사의 실적으로 계산하는 IPSA의 경우 1월말 기준 4,260.76에서 시작, 6월말에는 4,400.10까지 기록하였으나 7월말에는 4,227.56까지 하락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8월14일 기준으로는 4,184.53으로 마감하여 소폭 하락세 유지 중.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2012년 8월14일 현재 5.20%로 연초 대비 큰 변동 없음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불, %)

순 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가타 중장비 부품 (8431.49)	181.4	7.9	221.7	18.1	127.4	13.0	1.9	26.3	4.3	55.8	1.8	22.2
2	자동차 배터리 (8507.10)	61.2	32.6	67.4	9.8	34.8	1.5	20.8	35.5	19.4	-7.2	12.6	30.1
3	보일러 (8403.10)	7.0	32.8	9.7	27.8	5.9	17.7	1.0	50	1.7	41.1	1.3	61.5
4	유입식 변압기 (8504.23)	35.2	-118	17.9	-96	28.1	-13.7	7.2	-38.8	6.3	-14.2	7.2	-
5	기타의료기기 (9018.90)	81.0	15.1	117.2	30.8	72.2	18.8	0.8	-87.5	0.7	-14.2	0.6	50.0
6	파이프, 벨브 등 (8481.80)	185	20	200	7.5	99.2	-0.8	7.9	27.8	7.2	-9.7	3.7	-45.9
7	에이치형강 (7216.33)	6.0	48.3	11.7	48.7	5.1	-14.7	0.8	75	2.0	60	0.6	-116
8	핸드폰악세서리 (3926.90)	100.9	29.4	121.7	17.0	61.8	1.5	1.2	25	1.4	14.2	1.2	41.6
9	콘택트렌즈 (9001.30)	4.6	9.6	5.1	9.1	2.8	8.9	0.1	30	0.09	-11.1	0.04	50.0
10	비디오카메라 (8525.80)	109.6	24.6	128.0	14.3	60.8	-5.2	2.6	34.6	3.4	23.5	0.8	-125

자료원 : Checkpoint

□ 10대 품목별 선정사유

1	품목명	중장비 부품	(HS : 8431.49)
---	-----	--------	----------------

○ 시장동향

- 기타 중장비 부품의 수입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억3천만 달러
- 동실적은 2010년도 실적인 약 1억8천만 달러 대비 약 28% 감소한 수치인데 2010년은 2월말 발생한 지진으로 복구 사업이 급증하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2012년 상반기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 6,500만 달러 기록 중.
- 칠레는 중장비와 부품 관련 자체 생산기반이 미비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기타 중장비 부품의 국가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1위로 매년 50%이상의 높은 점유율 기록 중이나 소폭 하향 추세.
- 이에 반해 중국은 점유율 상승 중으로 특히 2011년은 전반적인 수입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금액과 점유율이 대폭 상승세임.

【 칠레의 중장비부품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81,408	-	221,795	-	127,454	-
1	미국	107,426	59.22	127,887	57.66	65,040	51.03
2	독일	13,949	7.69	13,737	7.03	12,394	9.72
3	중국	5,441	3.00	15,597	6.19	8,281	6.50
4	스위스	9,076	5.00	11,395	5.14	7,374	5.79
5	일본	6,172	3.40	7,670	3.46	5,267	4.13
11	한국	1,946	1.07	4,302	1.94	1,831	1.44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칠레 건설경기 지표인(IMACON)은 2012년 1분기 평균 약 11% 성장함. 이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지진 재건사업의 지속추진과 광산업, 전력 프로젝트 발주 증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무실 신축 증가 등에 기인하며 당분간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	품목명	자동차 배터리	(HS : 8507.10)
---	-----	---------	----------------

○ 시장동향

-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수요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자동차 판매량과 배터리 수입액을 통해 대략적인 추측 가능함. 칠레 자동차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장 중으로 특히 2011년은 사상 최대치인 34만대의 판매량을 기록
- 2012년에는 승용차 기준 전년 최고치 대비 다소 하향된 30만대 판매가 예상되는 가운데 1분기 판매실적은 77,458대를 기록, 예상외의 호조세를 보였으며 자동차 대수가 증가해감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수요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 경쟁 및 수입동향

- 칠레는 자동차 배터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수입 시장 규모는 6,700만 달러에 달함. 전체적인 수입량도 자동차 증가추세에 맞추어 매년 증가 중임.
- 수입국 순위를 보면 한국산이 약 36%로 점유율 1위인데 이는 한국산 자동차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약 35%로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칠레의 자동차 배터리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61,282	-	67,472	-	34,838	-
1 한국	20,887	34.08	19,492	28.89	12,635	36.27
2 콜롬비아	16,071	26.23	18,200	26.98	7,609	21.84
3 미국	6,277	10.24	8,534	12.65	5,256	15.09
4 페루	1,848	3.02	2,988	4.43	2,170	6.23
5 중국	2,597	4.24	2,102	3.12	1,616	4.64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칠레는 중산층 소득증가와 대형프로젝트의 지속추진으로 승용차와 상용차 모두 판매가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수요도 증가 예상.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선전에 따라 배터리도 한국산 수요가 증가추세임.

3	품목명	보일러	(HS : 8403.10)
---	-----	-----	----------------

○ 시장동향

- 칠레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보일러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 '11년 기준 (중앙난방용)보일러의 수입액은 약 9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7.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도 증가 추세임.
- 칠레는 국토가 길어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지만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사는 수도권의 경우 겨울 평균기온은 5도에서 15도이며 최근 산티아고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보일러 시설을 갖추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중앙난방용 보일러의 주요 수입국은 모두 선진국으로 이탈리아 제품이 시장점유율 약 60%로 수입시장 1위 국가를 고수 중이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향 추세이며 시장점유율 2위인 한국산의 점유율은 매년 증가 추세임.

【 칠레의 보일러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7,070	-	9,701	-	6,951	-
1 이탈리아	4,529	64.06	5,996	61.80	3,451	58.00
2 한국	1,001	14.16	1,733	17.86	1,331	22.38
3 벨기에	439	6.21	604	6.23	287	4.84
4 스페인	131	1.86	501	5.17	154	2.60
5 오스트리아	524	7.41	120	1.24	118	2.00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칠레는 건설 붐으로 인하여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기존 노후 아파트도 보일러 교체수요가 있어 향후 보일러 수요는 늘어날 예정임. 칠레 수입상들이 선진국산을 선호하여 저가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산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매년 점유율 상승 중

4

품목명 유입식 변압기

(HS : 8504.23)

○ 시장동향

- 칠레는 광산 프로젝트의 증가로 전력 수요도 늘어나는 것에 비해 전력 생산량은 부족한 국가로 추후 전력 프로젝트의 지속 증가가 예상됨. '12년 2분기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 중 에너지 분야 승인액이 약 56억 달러에 달해 전체 프로젝트의 28.9%에 달함.
- '11년에는 수입량이 전년 대비 약 50%나 감소하였으나 '12년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0년 수준의 약 80%까지 육박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유입식 변압기의 국별 수입현황을 보면 한국산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약 26%를 기록함. 콜롬비아, 브라질 등 역내 교역량도 많은 것이 주목할 만함. 중국산의 경우, '11년 11%까지 점유율을 기록했다가 '12년 상반기 들어 점유율이 주춤한 상황임.
- 변압기 수입업체는 배전회사, 신재생에너지회사, 광산회사 등이 있음.

【 칠레의 유입식 변압기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35,242	-	17,939	-	28,127	-
1	한국	7,257	20.59	6,360	35.46	7,216	25.66
2	콜롬비아	2,748	7.80	5,912	32.96	6,566	23.34
3	스페인	0.101	0.00	187	1.04	5,919	21.04
4	포르투갈	-	-	-	-	3,625	12.89
5	중국	-	-	1,926	10.75	2,206	7.85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칠레의 전력사업 증가에 따라 변압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산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콜롬비아, 스페인산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므로 한국 업체의 관심 필요

5	품목명	기타 의료기기	(HS : 9108.90)
---	-----	---------	----------------

○ 시장동향

- 칠레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의료기기 역시도 100% 수입에 의존함.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0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3억 7,000만 달러였으며 '11년에는 4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 현 칠레 정부는 보건분야 서비스 개선을 7대 공약 중 하나로 설정, '15년까지 총 35억 달러를 투자하여 보건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며 민간투자도 확대되는 추세라 향후 의료기기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경쟁 및 수입동향

- '11년 기준 기타 의료기기의 수입액은 약 1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하였으며 '12년 상반기에도 증가세 유지 중임. 기타 의료기기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산 제품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은 '12년 상반기 기준 0.83%에 그침.
- 중국산의 점유율이 5-6%로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칠레의 기타 의료기기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84,790	-	120,385	-	75,767	-
1	미국	29,678	35.00	40,238	33.42	22,962	30.31
2	독일	17,272	20.37	22,933	19.05	15,471	20.42
3	일본	6,725	7.93	11,039	9.17	7,315	9.66
4	멕시코	6,540	7.71	11,211	9.31	6,554	8.65
5	중국	4,813	5.68	6,736	5.60	3,971	5.24
17	한국	864	1.02	764	0.64	626	0.83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칠레 정부의 민간 보건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의료기기 수요 증가 중이며 이에 따라 수입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한국산의 점유율은 미약하나 중국산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산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어필하면 점차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품목명	파이프, 밸브 등	(HS : 8481.80)
---	-----	-----------	----------------

○ 시장동향

- 칠레는 광업과 전력산업이 활황세로 이에 따라 파이프와 밸브 수요도 다대하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광업, 전력산업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예정으로 '12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프로젝트 중 상기 2개 분야가 80%에 달함.
- '12년 상반기 기준 환경영향평가 승인 금액 추세를 살펴보면 '08년 5,255백만 달러에서 '12년 28,899백만 달러로 무려 4.5배 가량 성장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파이프 및 밸브의 수입액은 2011년 기준 약 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12년 상반기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점유율은 약 30%이며 미국이 2위를 기록, 나머지 국가들은 한자리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중국산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 산으로 양분된 상황

【 칠레의 파이프, 밸브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85,025	-	200,253	-	99,265	-
1	중국	48,459	26.19	52,889	26.41	30,677	30.90
2	미국	47,350	25.59	48,396	24.17	23,511	23.69
3	이탈리아	27,127	11.42	11,269	5.63	6,454	6.50
4	스페인	11,686	6.32	11,158	5.57	5,229	5.27
5	독일	8,144	4.40	10,974	5.48	4,718	4.75
6	한국	7,950	4.30	7,253	3.62	3,715	3.74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중기적으로 광산, 에너지 산업 활황세로 관련 자재들도 수입 증가 예상됨. 한국산의 점유율이 아직 높지 않으나 선진국 산에 비해 유연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점유율 확대 가능성 있음

7	품목명	에이치형강	(HS : 7216.33)
---	-----	-------	----------------

○ 시장동향

- '11년 기준 에이치형강의 수입액은 약 1천1백만 달러로 '10년도 대비하여 약 19.6% 증가하였으며 '12년 상반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함.
- 칠레 건설경기 지표인 IMACON은 '12년 1분기 평균 약 11% 성장하였으며 건설 관련 자재는 16.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칠레건설업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1년 칠레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평균 거래량보다 17% 높게 나타남. 이러한 부동산 호황은 자연스레 건설경기에도 영향을 주는데 현재 칠레의 중심가와 북부지역 곳곳에서 신축공사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에이치형강의 국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12년 기준 스페인산이 77.52%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칠레의 에이치형강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6,014	-	11,778	-	5,187	-
1	스페인	3,341	55.56	9,131	77.52	3,845	74.13
2	한국	865	14.40	2,087	17.72	633	12.22
3	미국	695	11.57	2	0.02	261	5.04
4	중국	-	-	9	0.08	251	4.85
5	룩셈부르크	29	0.50	96	0.73	110	2.13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칠레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지진 재건사업의 지속추진과 광산업, 전력 프로젝트 발주 증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무실 신축 증가 등 다양한 호재로 인해 당분간 건설경기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

8

품목명 휴대전화 악세서리

(HS : 3926.90)

○ 시장동향

- 칠레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중남미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휴대전화 대수는 1,15대를 기록, 1416대를 기록한 아르헨티나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특히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11년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약 68만대에 달하여 전년 대비 2배 증가함. 칠레는 중남미 인근국보다 스마트폰의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앞으로도 스마트폰 보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스마트폰의 증가에 따라 관련 악세서리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 경쟁 및 수입동향

- 휴대전화 악세서리의 정확한 수입량을 알 수는 없으나 동제품과 가장 가까운 HS Code인 플라스틱 기타 제품의 수입액은 '11년 기준 1억2천만 달러임. 플라스틱 제품은 큰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으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큰 상황임.

【 칠레의 휴대전화 악세서리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00,917	-	121,750	-	61,871	-
1	중국	29,668	29.40	36,666	30.12	17,947	29.01
2	미국	19,360	19.18	22,528	18.50	12,203	19.72
3	프랑스	8,127	8.05	10,006	8.22	4,848	7.84
4	독일	5,533	5.48	7,230	5.94	4,444	7.18
5	브라질	5,382	5.33	6,128	5.03	2,871	4.64
11	한국	1,256	1.25	1,483	1.22	1,269	2.05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스마트폰은 제품 특성상 기계를 보호하는 악세서리를 거의 필수처럼 사용하므로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은 곧 악세서리 수요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한국제품은 디자인 면에서 우수해 타국산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9	품목명	컨택트 렌즈(HS : 9001.30)
---	-----	----------------------

○ 시장동향

- 칠레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컨택트렌즈 역시 수입산이 절대 다수를 차지. 칠레 유력안경체인점인 Place Vendome의 관계자에 따르면 칠레의 컨택트렌즈 제조업체가 소수 존재하나 무척 영세한 수준.
- 따라서 칠레의 컨택트렌즈 수요는 수입액으로 대략 추정이 가능한데 '11년 기준 컨택트렌즈의 총 수입액은 약 510만 달러임.
- 또한, 칠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3년 기준 칠레 17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2012년 상반기 기준 수입국별 순위를 보면 미국이 점유율 약 52%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아일랜드와 인도네시아가 차지함. 한국산은 점유율 1.5%로 아직 미약한 수준임.

【 칠레의 컨택트 렌즈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646	-	5,114	-	2,874	-
1	미국	2,618	56.37	2,774	54.24	1,483	51.62
2	아일랜드	778	16.76	940	16.44	468	16.32
3	인도네시아	189	4.07	562	11.00	365	12.71
4	영국	142	3.07	323	6.33	205	7.14
5	인도	5	0.11	62	1.21	82	2.86
9	한국	112	2.42	91	1.79	43	1.50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칠레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가 필요한 인구가 많으나 아직 라식, 라섹 수술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아 관련 수요가 충분함. 한국산을 수입해 본 경험이 있는 바이어들이 한국산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평하고 있어 현재보다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10	품목명	비디오카메라	(HS : 8525.80)
----	-----	--------	----------------

○ 시장동향

- 비디오카메라 시장은 일반 가정용 제품과 감시용 CCTV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칠레는 양측 모두 시장수요가 다대함. 가정용 제품은 최근 소득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CCTV는 범죄예방용으로 각종 공공시설이나 민간사업장의 수요가 많음.
- 칠레의 가전제조업체는 CTI 1개사가 존재했으나 Electrolux에 인수되었으며 CCTV 도 전량 수입에 의존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비디오카메라 수입액은 '11년 기준 약 1억 3천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약 17.4%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수입국별로는 중국이 점유율 약 50%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들도 대부분 중국 생산공장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 칠레의 비디오카메라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09,600	-	128,098	-	60,822	-
1	중국	61,917	61,917	67,821	52.94	30,887	50.75
2	일본	11,421	11,421	17,127	13.37	9,833	16.17
3	미국	12,678	12,678	17,734	13.84	7,342	12.07
4	호주	1,295	1,295	1,416	1.11	1,904	2.86
5	대만	1,779	1,779	2,614	2.04	1,571	2.58
8	한국	2,653	2,653	3,441	2.69	862	2.26

자료원 : Checkpoint

○ 선정사유

- 최근 칠레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가전에 대한 수요 증가 중임.
- CCTV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치안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거주인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꾸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됨.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일반적인 마케팅 방안으로는 전시회 참가가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리적 원거리로 인해 칠레 바이어의 방한은 드문 상황. 따라서 칠레 현지 전시회 참가를 고려해야 하며, 본 보고서에서 선정한 10대 유망품목과 관련된 '13년 전시회는 다음과 같음.

전시회명	기간	관련품목
안토파가스타 광업전시회	2013.6.17-6.21	기타중장비부품,파이프/밸브
주택전시회	2013.4월	기타중장비부품, 에이치형강
병원전시회	2013.6.26-6.28	기타 의료기기
치과전시회	2013.5.30-6.1	기타 의료기기

- 전시회 참가 약 1개월 전 관련 바이어 리스트를 입수하여 초청장을 발송 또는 코트라 조사대행을 통해 관심바이어와 미팅 주선 필요.
- 다음으로 바이어와 직접 미팅을 위해서는 무역사절단이나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음.
 - 2012 충북 중남미 무역사절단(중소기업협력팀) : 2012.9.10(월), 산티아고
 - 2012 Global Business Plaza(신흥시장팀) : 2012.10.5(금), 서울
- 상기에서 언급한 전시회나 사절단 등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관심바이어 조사를 실시, 바이어와 1-2개월 교신 후 세일즈 출장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칠레는 자동차와 가전부분에서 한국제품이 선전하고 있는 관계로 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한편 칠레는 세계 주요 교역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개방시장으로서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임. 따라서 신흥국 제품 대비 프리미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되 가격은 유연성 있게 책정해야함.
- 특히 초도오더에 한해서는 다소 파격적인 가격제시도 필요하며 일단 수입이 이루어져 품질을 체험한 후 반복적인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칠레는 시장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수입상들이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영업력을 갖춘 우수 에이전트를 발굴하여 독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함.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한국제품을 수입한 바 있는 바이어들은 대부분 한국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음.
- 의료기기, 중장비 부품 등은 선진국 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으나 브랜드 이미지가 아직 약하므로 경쟁력 있는 가격이 일반 소비재의 경우는 중국산과 차별화되는 디자인, 기능 등이 필요함.
- 칠레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함을 고려할 때 납기와 AS도 중요한 경쟁요소임을 강조.

□ 진출 시 유의사항

- 칠레는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극히 미약하여 산업재, 중간재, 소비재 등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관세, 비관세장벽 모두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관세의 경우 한-칠레 FTA, 중-칠레 FTA 등에 따라 한국기업의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세이며 부가세는 19%임. (FTA 수혜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단일관세로 6% 부과) 통관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음.

7. 페루

(무역관명: 리마)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우말라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급격한 시장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올해에도 무난히 6% 상당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2013-15년 GDP 성장률은 세계경제 내수 회복지연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페루 중앙은행이 예상한 잠재 성장률인 6-6.5%를 밑도는 연평균 5.5%로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개발정책 실패 경우에는 페루의 잠재 GDP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더 낮게 만들 것으로 예상

【 최근 3년간 페루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8.8%	6.9%	5.6%

자료원 : 페루 중앙은행, 경제부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페루 수출입 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5월
수출액(백만 달러)	944	1,368	589
수입액(백만 달러)	1,039	1,950	732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수출액(백만 달러)	944	1,368	865

자료원: KITA

○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총GDP(백만달러)	153,919	176,761	46,626 (1-3월)
1인당 GDP(달러)	5,224	5,932	6,300*
환율(달러:솔)	2,825	2,741	2,623
소비자물가상승률(%)	2.08	4.74	1.53
외환보유고(백만달러)	44,105	48,816	51,987 (1-6월)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근년 광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페루는 원자재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77% 차지)과 광업 및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힘입어 고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상승하며 자동차, 가정용품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증가
- 농목축, 제조업, 수출용농업은 주요 수출국 미국, 중국의 수요 감소로 심한 기복을 보이며 서비스는 소매, 운송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의존성이 높아 하락세를 보임.
- 2011년 말 누적 인플레이션률이 목표치(3%)를 벗어난 4.74%, 2012년 현재 4.14%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제 유가와 더불어 상승하고 있는 식품가격에 기인한 것임.

○ 금융부문

- 여신 이자율은 '11년 대비 2.6% 높은 22%으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률만 1-3%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이완된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경제침체가 악화될 경우, '08-09년 경제위기시 취했던 것처럼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것임.
- 페루 증시는 유럽주식시장의 영향으로 2011년 17% 하락하였으나 2012년 1/3분기 21% 성장률을 보였음.

나. 3대 수출유망품목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불,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8703.23)	618	53.0	737	19.0	372	22.2	177	118.4	257	45.3	184	59
2	자동차부품 (8708.99)	69	-6.7	73	5.9	26.8	3.5	16	17.1	23	43	12	6.9
3	버스 및 화물 차용 타이어 (4011.20)	142	68.0	145	2.3	70	13.4	12	46.8	16	25.3	12	66.7

(자료원 : 페루세관, 한국무역협회)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자동차(1,500cc-3,000cc)	(HS : 8703.23)
---	-----	----------------------	----------------

○ 시장동향

- '11년 수입규모는 US 7억 37백만 달러로 '12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으며 한국산 제품 수입은 5.9% 상승하였음.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수송기계부문(자동차 포함)의 '10년 수입은 대한수입품목 비중의 28.8%이었으나 '11년은 37%로 수입수요가 급속 증대됨. '09년의 국산차 판매율은 일본차 대비 4.8% 낮았으나 '11년에는 11.8%나 앞지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냄.

【 페루의 자동차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07,535	-	620,581	-	737,445	-
1	한국	95,315	23.4	178,805	28.8	262,547	35.6
2	일본	185,346	45.5	238,851	38.5	198,246	26.9
3	멕시코	25,747	6.3	51,059	8.2	59,024	8.0
4	독일	30,313	7.4	41,249	6.6	56,961	7.7
5	브라질	21,388	5.2	35,720	5.8	45,700	6.2

자료원 : 페루 세관

○ 선정사유

- 안정적 경기 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이 자동차 구매확산으로 반영되어 수입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임.
- 페루시장에서는 중고차 구매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최근 중산층의 구매력이 증가하며 신차시장규모가 탄력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산차 현대와 기아의 판매율을 합하면 페루 자동차 시장점유 1위국에 해당함.
- 자동차는 2011년 체결된 한-페루 FTA로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이기도 함.

2	품목명	자동차부품	(HS : 8708.99)
---	-----	-------	----------------

○ 시장동향

- 모든 차종의 부품과 예비부품 시장의 규모는 매년 약 US 4억3천만 달러에서 US 5억2천만 달러 사이의 값으로 상승하고 있고 한국산제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약 7% 증가함.
- 수요특징 : 배터리, 필터, 점화플러그, 브레이크디스크, 클러치 등의 일부제품을 제조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부품공급은 수입에 의존함

○ 경쟁 및 수입동향

【 페루의 자동차부품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5,362	-	46,283	-	49,620	-
1	미국	5,832	12.9	9,424	20.4	11,319	22.8
2	중국	20,129	44.4	13,757	29.7	9,715	19.6
3	브라질	2,840	6.3	4,371	9.4	6,714	13.5
4	이탈리아	3,309	7.3	5,236	11.3	5,992	12.1
5	일본	3,939	8.7	4,097	8.9	4,083	8.2
6	한국	2,229	4.9	2,412	5.2	3,218	6.5

자료원 : 페루 세관

○ 선정사유

- 자동차 수입의 증가로 최근 몇 년간 신차와 예비부품 및 부속품 등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증가
- 현지 소비자들의 기아, 현대 자동차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국산 브랜드 자동차부품 구매 관심도 또한 함께 상승
- 시장점유율을 점차 높이고 있는 중국제품 및 현지제품과의 경쟁에서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신차 구매 소비자는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정품부품 구입을 선호하고 있어 국산 OES 제품이 판매 경쟁력을 갖추고 현지 시장 진입 가능

3	품목명	타이어(버스 및 화물차용)	(HS : 4011.20)
---	-----	----------------	----------------

○ 시장동향

- '11년 전체 수입규모는 US 1억4천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 성장하였으나 대한수입은 25% 증가하였으며 '12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66.7% 증가율을 보임.
- 페루에도 타이어 제조/수출기업들이 존재하나 세계 브랜드제품 수입 비중이 높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내수시장 활성화로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1년 생산량 11.6% 증가했으며 현지 생산품 시장점유율 약 40%임. 타이어 수입 비율은 승용차용 42%, 화물차 및 버스용 41%, 기타 농업 및 건설용 수송기기 순임.

【 페루의 타이어(버스 및 화물차용)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83,875	-	141,969	-	145,058	-
1	중국	20,019	23.9	52,516	37.0	42,762	29.5
2	브라질	11,153	13.3	15,171	10.7	19,248	13.3
3	일본	8,593	10.2	16,912	11.9	17,061	11.8
4	인도	14,637	17.5	10,819	7.6	16,834	11.6
5	한국	10,371	12.4	12,989	9.1	14,094	9.7

자료원 : 페루 세관

○ 선정사유

- 화물차, 버스를 포함한 신차 판매율이 '10년 57%, '11년 24% 상승함에 따라 타이어 수요 증가
- 현지시장은 200여개 이상의 타이어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산제품의 진입 가능성 높음.

3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현지 자동차 부품, 타이어 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2013 Expomecanica" 참가 추천(2013.3.22~24)
 - 2012년 1회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약 1만여명이 방문하였음. 규모는 작으나 페루 최초 자동차 부품전문전이라는 점에서 현지 업계 관심도가 높은 전시회임.
 - 동 전시회에 참가 혹은 참관에 앞서 바이어찾기 서비스, 세일즈 출장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 바이어 상담을 마치고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수출 성약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거래지원팀).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다소 거리적 제약이 따르는 시장이므로 인도 소요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파나마 소재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적극 활용 권장.
- 2002년 이후 중고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제조 과정에서 수리된 중고품들은 품질보증을 거쳐 수입될 수 있음.
- 공정거래소비자보호국(Indecopi)은 올해부터 소비자의 공산품품질 관련 불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각종 전기제품, 냉장고, TV등 유통제품 모두 감독하므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됨.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수송기계 부문은 유명브랜드가 아닐 경우 관련 부속의 원활한 조달이 어려워 고객 신용도 하락의 위험요소가 있어 수입을 꺼린다고 함. 현지 A/S 대리점 (혹은 남미지역 주재)을 통한 신속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진출시 유의사항

- FTA체결로 승용차(페루 관세율 6%, 07-08년 평균 對페루 수출 9천7백만불) 관련 대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 중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5년에 걸친 단계적 관세인하 후 철폐 협정함.
- 페루는 전품목에 VAT 18% 부과, 대외지향적인 수출입국가로 무역규제 특이사항은 없음.

8. 파나마

(무역관명: 파나마)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파나마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신속히 탈출, 이후 7~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 경제 선도국임.
- '파나마 제2운하'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투자에 힘입어 '12년에는 8.9%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파나마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7.6%	10.6%	8.9%

자료원: EIU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파나마 수출입 동향

자재 제조업이 전무한 가운데 주재국 수입규모가 매년 두 자리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는 각종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기자재 수요 증가에 기인함.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액(백만 달러)	806	711	771
수입액(백만 달러)	7,660	8,964	11,135

자료원: WTA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3월
수출액(백만 달러)	4,053	3,798	1,082

자료원: KITA

○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총GDP(백만달러)	26,590	30,832	34,941
1인당 GDP(달러)	7,589	8,564	9,705
환율(달러:발보아)	1.0	1.0	1.0
소비자물가상승률(%)	4.9	6.3	5.5
외환보유고(백만달러)	2,715	2,315	3,314
인구(백만명)	3.5	3.6	3.6

자료원 : EIU, World Bank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수입증가로 GDP의 12%에 달하는 높은 경상수지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임. 하지만 안정적인 외자유입이 경상적자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장의 동요는 없음.
- 공공부문 투자 확대 외에도 기간산업인 파나마운하 및 이를 중심으로한 물류 이용수요가 꾸준한 만큼, 파나마 실물경제는 세계경기 침체의 직접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음
- '11년 6.3%에서 올해 말에는 5.9%대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나,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달러 약세,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시장 내 유동성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 심화 가능성도 상존

○ 금융부문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0년 24억불에 이어 '11년 28억불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2년 1분기에도 6억불을 기록하는 등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나. 10대 수출유망품목

10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백만불,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¹⁾						아국 수출동향 ²⁾					
		2010		2011		2012상 (1-3월)		2010		2011		2012상 (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승용차(1.5-3L) (8703.23)	273.7	24.7	296.2	8.2	85.3	-	85.7	69.7	105.4	23.0	44.8	-16.8
2	기타휘발유 등 (2710.19)	933.4	30.5	1,247.6	33.7	415.7	-	49.6	15.1	73.6	48.3	42.2	14.6
3	차량용부속품 (8708.99)	46.3	-0.3	48.0	3.66	11.5	-	23.0	70.2	24.9	8.2	10.8	-2.2
4	굴삭기 (8429.52)	21.7	-33.9	36.8	70.0	10.0	-	9.9	528.4	11.2	12.6	9.8	134.6
5	철강제구조물 (7308.90)	51.4	88.4	35.8	-30.3	8.7	-	1.1	648.6	4.4	311.7	15.1	697.8
6	에이치형강 (7216.33)	16.6	81.3	15.2	-8.4	5.5	-	8.1	3.8	7.0	-13.1	6.5	203.7
7	타이어(버스·화물차) (4011.20)	23.2	25.8	20.7	-10.8	5.8	-	7.3	6.9	8.0	9.6	5.9	93.3
8	재생타이어(버스·화물차용) (4012.12)	1.1	-22.1	1.3	19.1	0.4	-	1.1	22.1	1.5	38.4	1.5	118.6
9	사무용금속제가구 (9403.10)	4.9	2.6	8.2	67.7	1.6	-	1.4	144.5	1.5	8.5	1.1	96.2
10	진단시약 (3822.00)	16.0	-4.0	20.8	30.1	3.5	-	0.2	37.0	0.3	25.4	0.3	268.1

*자료원 : ¹⁾파나마감사원, ²⁾무역협회 무역통계. 단, 무역협회 통계는 콜론프리존 수출실적을 포함함

10대 품목별 선정사유

1	품목명	승용차(1,500cc이상 3,000cc미만)	(HS : 8703.23)
---	-----	--------------------------	----------------

○ 시장동향시장동향

-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는 '11년 기준 47천대로 유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전년 대비 24%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특히 최다 판매량의 중형차에서 한국산 차량의 인기가 치솟고 있어 30%를 상회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중산층의 소득증가 및 전반적인 내수 호황에 힘입어 동 세그먼트 규모는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 특히 아국 제조사가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차를 대거 출시하면서 올해 누적판매량 기준 현대차가 압도적 1위로 독주 중.

※'12년 5월 상위 10대 베스트셀러 중 6대가 한국산

【 파나마의 승용차(1,500cc-3,000cc)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19,596	-	273,739	-	296,224	-
1	한국	54,619	24.9	92,619	33.8	103,331	34.9
2	일본	76,344	34.8	91,584	33.5	88,252	29.8
3	멕시코	10,266	4.7	17,779	6.5	39,436	13.3
4	독일	18,350	8.4	26,642	9.7	31,261	10.6
5	미국	51,115	23.3	32,743	12.0	24,970	8.4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시장 내 한국산 차량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고, 특히 가격 대비 상품성이 경쟁업체를 압도하면서, 시장이 한국산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2	품목명	기타 휘발유 등	(HS : 2710.19)
---	-----	----------	----------------

○ 시장동향

- 석유 다소비 업종이 없어 유류소비량 자체는 작으나, 차량 증가세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유류소비량도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
- 더불어 정유기반이 부재로 유류 수입은 매년 30%씩 증가세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한국산 석유수입량은 '10년 48백만불에서 '11년 74백만불로 48%가량 급증하였으며, '12년 상반기에도 42백만불을 수입하는 등 전년 수준 이상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한국산 석유는 Oil Free Zone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파나마의 기타 휘발유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715,241	-	933,449	-	1,247,566	-
1	Oil Free Zone	531,227	74.3	738,953	79.2	1,103,975	88.5
2	미국	86,082	12.0	136,406	14.6	122,909	9.9
3	엘살바도르	5,416	0.8	4,144	0.4	8,318	0.7
4	코스타리카	2,258	0.3	2,697	0.3	3,372	0.3
5	멕시코	23,157	3.2	1,313	0.1	1,547	0.1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개인차량 소유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문화에 힘입어 디젤, 휘발유 등 내연기관 연료 수입 당분간 증가 예상.
- 기타 각종 운송기계의 유지보수 수요 증가로 윤활유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3	품목명	차량용부속품	(HS : 8708.99)
---	-----	--------	----------------

○ 시장동향

- 한국산 차량 시장점유율이 최근 30%를 돌파하면서, 애프터마켓용 부속품 교체수요는 꾸준한 확대일로에 있음. 최근 급증한 한국산 차량의 부속품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향후 2~3년 간 점진적인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

○ 경쟁 및 수입동향

- 관련 제조업 부재로 자동차 부속품 수요는 애프터마켓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물량이 콜론프리존을 경유하여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11년 25백만불에 달하고 있음.

【 파나마의 차량용부속품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6,443	-	46,311	-	48,004	-
1	미국	21,310	45.9	19,248	41.6	16,661	34.7
2	일본	7,108	15.3	7,336	15.8	8,698	18.1
3	멕시코	2,890	6.2	4,290	9.3	5,096	10.6
4	콜론프리존	6,182	13.3	5,599	12.1	4,885	10.2
5	독일	1,660	3.6	1,575	3.4	2,119	4.4
6	한국	911	2.0	1,184	2.6	1,726	3.6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중산층의 신차구매 수요 증가로 특히 한국산 차량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는데, 따라서 향후 수년간 애프터마켓 부속품 수요도 연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4	품목명	굴삭기	(HS : 8429.52)
---	-----	-----	----------------

○ 시장동향

- 경전철 프로젝트, 파나마 제2운하 확장사업, 상수도망 개선사업 등 다수의 국책사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관련 건설중장비 수요 꾸준.
- 특히 '11년에는 전년 대비 70% 가량 수입량이 늘었으며, 주요바이어들 또한 전년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지 굴삭기 수요는 CATEPILLAR등 미국산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산 또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
- 특히 올 상반기 국산 굴삭기 수입은 전년 대비 135%가 늘어, 하반기 및 내년까지도 공격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가격 위주의 시장인 만큼 중고 중장비의 구매수요도 노려볼 만함.

【 파나마의 굴삭기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32,798	-	21,668	-	36,833	-
1	미국	10,333	31.5	6,945	32.1	11,261	30.6
2	한국	7,991	24.4	3,389	15.6	7,949	21.6
3	브라질	3,206	9.8	1,389	6.4	5,878	16.0
4	일본	4,416	13.5	3,602	16.6	2,839	7.7
5	스위스	1,171	3.6	894	4.1	1,836	5.0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대규모 토목공사가 '14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굴삭기를 비롯한 각종 건설중장비 수요 꾸준.

5	품목명	철강재구조물	(HS : 7308.90)
---	-----	--------	----------------

○ 시장동향

- 부동산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에 누적되어 있어 건축자재 시장 자체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건축자재로서의 한국산 철강재구조물 수입은 최근 3년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

○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지 감사원 통계에 따르면 미국산 및 스페인산이 시장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역협회 수출통계¹⁾에 따르면 한국산 수출액이 매년 400~690%에 달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¹⁾ 파나마감사원(World Trade Atlas 인용) 통계는 콜론프리존 교역액을 제외하고 있으나, 무역협회 수출통계는 콜론프리존 수출액을 포함함

【 파나마의 철강재구조물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7,303	-	51,442	-	35,841	-
1	미국	8,578	31.4	21,140	41.1	10,292	28.7
2	스페인	1,055	3.9	3,581	7.0	6,279	17.5
3	콜롬비아	1,793	6.6	7,067	13.7	4,453	12.4
4	코스타리카	2,785	10.2	1,069	2.1	3,414	9.5
5	한국	-	-	38	0.1	2,652	7.4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향후 2~3년간 각종 토건사업이 꾸준히 추진될 예정이며, 이밖에도 중소규모 서민용 주택단지 등 민간부문 사업을 통한 수요 진작도 기대.

6	품목명	에이치형강	(HS : 7216.33)
---	-----	-------	----------------

○ 시장동향

- 부동산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에 누적되어 있어 건축자재 시장 자체는 부침을 거듭중임. 국제 철강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구매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각종 토건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중으로 구매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경쟁 및 수입동향

-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에이치형강 수출규모가 연간 7백만불에 이르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6.5백만불을 수출하여 전년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

※ 파나마감사원(World Trade Atlas 인용) 통계는 콜론프리존 교역액을 제외하고 있으나, 무역협회 수출통계는 콜론프리존 수출액을 포함함

【 파나마의 에이치형강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9,135	-	16,563	-	15,165	-
1	미국	5,180	56.7	7,903	47.7	9,282	61.2
2	한국	2,557	28.0	6,309	38.1	4,290	28.3
3	스페인	1,265	13.8	84	0.5	1,385	9.1
4	룩셈부르크	-	-	-	-	104	0.7
5	코스타리카	93	1.0	-	-	82	0.5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향후 2~3년간 각종 토건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에이치형강을 비롯한 각종 철강재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기대됨.

7

품목명 **타이어(버스 및 화물차)(HS : 4011.20)**

○ 시장동향

- 상용차타이어 시장은 정체 또는 다소간의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완료된 시내버스(METROBUS) 2,000대 교체사업의 여파로 추정되며, 향후 타이어 교환주기가 조만간 다가옴에 따라 교체 타이어 수요를 중심으로 접근 할 시 좋은 성과가 기대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중국산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중남미공장 제품과 한국산이 나머지 시장을 놓고 경쟁중임.
-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타이어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콜론프리존을 우회한 수입 또는 주변국 재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콜론프리존 타이어 취급상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 파나마감사원(World Trade Atlas 인용) 통계는 콜론프리존 교역액을 제외하고 있으나, 무역협회 수출통계는 콜론프리존 수출액을 포함함

【 파나마의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8,414	-	23,165	-	20,660	-
1	중국	4,653	25.3	9,052	39.1	7,947	38.5
2	콜론프리존	2,137	11.6	2,366	10.2	4,270	20.7
3	한국	5,683	30.9	4,200	18.1	3,428	16.6
4	코스타리카	2,008	10.9	2,260	9.8	1,725	8.3
5	브라질	431	2.3	885	3.8	686	3.3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음.

8	품목명	재생타이어(버스·화물차용)	(HS : 4012.12)
---	-----	----------------	----------------

○ 시장동향

- 상용차타이어 시장은 정체 또는 다소간의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완료된 시내버스(METROBUS) 2,000대 교체사업의 여파로 추정되며, 향후 타이어 교환주기가 조만간 다가옴에 따라 교체 타이어 수요를 중심으로 접근 할 시 좋은 성과가 기대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연간수입액이 '11년 기준 1.3백만불로 매우 작은 시장이나, 한국산 재생타이어의 수출액은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올 상반기에만 1.5백만불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음.
- 다만, 한국산 재생타이어 대부분이 주변국으로 재수출되거나 콜론프리존을 우회하여 내수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콜론프리존 타이어 취급상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 파나마감사원(World Trade Atlas 인용) 통계는 콜론프리존 교역액을 제외하고 있으나, 무역협회 수출통계는 콜론프리존 수출액을 포함함

【 파나마의 버스 및 화물차용 재생타이어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360	-	1,059	-	1,261	-
1	일본	324	23.8	241	22.8	286	22.7
2	콜론프리존	123	9.0	306	28.9	235	18.6
3	미국	204	15.0	126	11.9	223	17.7
4	캐나다	207	15.2	164	15.4	179	14.2
5	중국	416	30.6	145	13.7	153	12.1
6	한국	23	1.7	35	3.3	96	7.6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음.

9	품목명	사무용금속재가구	(HS : 9403.10)
---	-----	----------	----------------

○ 시장동향

- 외국계기업의 법인설립이 활발하고 최근 대형 사무용빌딩이 줄지어 완공되면서, 신규입주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수요가 연일 증가세에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11년 기준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은 중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
- 주재국 수입통계와 한국 수출통계의 오차는 콜론프리존 포함여부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의 한국산 사무용가구는 콜론프리존을 우회하여 내수시장에 유통되거나 주변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파나마감사원(World Trade Atlas 인용) 통계는 콜론프리존 교역액을 제외하고 있으나, 무역협회 수출통계는 콜론프리존 수출액을 포함함
- 아국산 사무용가구는 올 상반기에만 1.1백만불을 수출하여, 이미 전년 동기 대비 9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파나마의 사무용금속재가구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745	-	4,866	-	8,162	-
1	중국	570	12.0	1,495	30.7	4,373	53.6
2	미국	1,891	39.9	1,371	28.2	1,019	12.5
3	콜론프리존	704	14.8	476	9.8	687	8.4
4	콜롬비아	414	8.7	448	9.2	545	6.7
5	스페인	167	3.5	97	2.0	499	6.1
11	한국	21	0.5	79	1.6	79	1.0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사무용 신축빌딩 입주 및 이전 수요에 힘입어 사무용 가구 시장 확대 예상.

10	품목명	진단시약	(HS : 3822.00)
----	-----	------	----------------

○ 시장동향

- 진단시약 수요는 '11년 21백만불로 크게 신장하면서, 이에 힘입어 한국산 제품도 시장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
- HIV, 매독, 마약(코카인, 마리화나) 안티도핑 등 진단시약 4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독일 및 미국산 제품이 시장을 75%가량 장악한 가운데, 기타 유럽 및 코스타리카 진출 기업이 뒤를 잇고 있음
- 단, 파나마보건부(MINSA)로부터 보건등록증(Registro Sanitario)를 사전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행할 현지 유력 에이전트 발굴이 필수

【 파나마의 진단시약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6,622	-	15,956	-	20,750	-
1	독일	4,237	25.5	6,287	39.4	9,623	46.4
2	미국	5,684	34.2	5,861	36.7	5,878	28.3
3	프랑스	1,165	7.0	1,398	8.8	1,879	9.1
4	코스타리카	4,087	24.6	622	3.9	875	4.2
5	스페인	151	0.9	121	0.8	291	1.4
9	한국	58	0.3	64	0.4	188	0.9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시장잠재력 대비 50%가량 성장한 단계로, 중장기적으로 3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파나마종합박람회 2013 참여
 - 중남미 최대 규모 종합박람회로 파나마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의 유력바이어 대거 참여하는 지역 내 전략전시회
 - 코트라는 20개 부스 규모의 한국관으로 매년 참여하고 있음.
 - 일시(본사접촉팀) : 2013년 4월 17~20일(전시협력팀)
- 충북 eTrade로드쇼 활용
 -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도내기업의 경우 eTrade로드쇼를 통한 파나마 내 유력바이어 발굴 가능.
 - 일시(본사접촉팀) : 2012년 10월 24 ~ 25일(거래지원팀)
- Latin America Business Plaza 행사 참가
 - 중남미 글로벌·유력바이어 30여개사를 방한 초청하여 국내기업과의 1:1 상담을 주선하는 하반기 전략사업
 - 일시 : 2012년 10월 5일(신홍시장팀)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파나마 콜론프리존 내 중개무역상 발굴 시 주변국 판로개척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바, 내수시장 뿐 아니라 콜론프리존을 포함한 시장 개척 노력 확대 필요.
- 진단시약, 의료기기는 현지 보건당국의 보건등록증(Registro Sanitario) 사전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는 바, 현지딜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시장이 작은 만큼 소량오더가 주종을 이루는데, 동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MOQ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자동차부속품: 중소 부품공급업체 대부분이 주문 수량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 85%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거래 유지 및 주문 확대 가능.
- (건설)중장비: 본사 엔지니어 파견 또는 딜러 기술자 방한 초청 교육 등을 통한 기술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상구매(60~90일 전후) 조건도 흔히 요구됨.
- 건축자재: 국내업체가 요구하는 MOQ를 맞출 수 없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작은 만큼 소량 주문에도 응해주기를 희망.
- 사무용가구: 가제품의 경우 한국의 F社인지도가 매우 높아 꾸준히 판매되고 있지만, 중저가 제품 수출을 희망한다면 중국 및 대만산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 의료 진단시약
 - 보건등록증(Registro Sanitario) 취득을 위해 매뉴얼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는 스페인어로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함.
 - 또한, 한국 내 국내인증이 아닌 FDA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인증을 획득한 상태에서 시장을 진입해줄 것을 당부.

□ 진출시 유의사항

- 자체 제조업이 없어 일체의 수입규제가 없으며, 10대 품목 별 관세·부가세율은 다음과 같음.

【10대 유망품목 별 관세 및 부가세율】

(단위 : %)

품목명		관세	특소세 (ISC)	부가세 ITBMS
HS(6단위)	HS(8단위)			
승용차(1.5-3L) 8703.23	21	-	12	7
	29		12	7
	41		5	7
	49		5	7
	91		15	7
	92		18	7
	93		23	7
	94		25	7
	96		15	7
	97		18	7
	98		23	7
	99		25	7
기타 휘발유 등 2710.19	10	0	-	0
	21	0		0
	22	30		0
	29	30		0
	30	0		0
	91	0		0
	92	10		7
	93	10		7
	94	10		0
	95	5		7
	96	5		7
	99	5		7
차량용부속품 8708.99	10	0	-	7
	90	5		
굴삭기 8429.52		5	-	
철강제구조물 730890	10	10	-	7
	20	5		
	30	15		
	40	15		
	50	3		
	90	10		
에이치형강 7216.33		0	-	7
타이어(버스·화물차) 4011.20		10	-	7
재생타이어(버스·화물차용) 4012.12		15	-	7
사무용금속제 가구 9403.10		15	-	7
진단시약 3822.00		0	-	7

*자료원 : 파나마세관(Autoridad Nacional de Aduana)

9. 과테말라

(무역관명: 과테말라)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미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과테말라는 글로벌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회복추세임.

【 최근 3년간 과테말라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2.8%	3.8%	3.2%

자료원: EIU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과테말라 수출입 동향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액(FOB, 백만 달러)	72.3	84.8	104.0
수입액(CIF, 백만 달러)	115.2	138.3	166.1

자료원: 과테말라 중앙은행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11년 한국의 대 과테말라수출은 ‘10년 2.4%감소를 기록한 뒤 ‘11년에는 7.8%증가하여 회복추세에 있음.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식물, 자동차, 철강판, 섬유사, 합성수지, 타이어 등이 있음.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액(백만 달러)	327	319	344

자료원: KOTIS

○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총GDP(억달러)	377	412	488
1인당 GDP(달러)	2,692	2,861	3,319
환율(달러:께찰)	8.16	8.06	7.78
소비자물가상승률(%)	-0.3	5.4	6.2
외환보유고(억달러)	49.3	55.6	56.0
인구(백만명)	14.0	14.4	14.7

자료원 : 과테말라 중앙은행, EIU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재미거주 교민의 송금액이 '12년 상반기 중 전년대비 10.5% 상승을 보여 소비자심리회복, 내수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또한, 2012년 1월 출범한 신정부는 치안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 치안, 보안 산업 및 관련서비스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로 인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금융부문

-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2009년 중 내수가 둔화되자 은행의 소비자 대출확대, 경기 진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7.0%에서 4.5%까지 금리를 인하함. 하지만 2011년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5.5%까지 인상함. 중앙은행은 2012-2013년 기간 중 인플레이션을 5~6%로 전망함.
-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경기 불황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실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은행의 소비자 대출금리는 13%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나. 3대 수출유망품목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 : US\$천,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10		2011		2012상		2010		2011		2012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변압기 (8504.33)	3,660.2	-54.8	6,371.2	72.9	2,554.8	n.a.	0.1	-	0.7	561.5	0.4	n.a.
2	에너지절감램프 (8539.22)	3,467.9	22.2	3,923.8	13.1	2,103.0	n.a.	9.9	-	10.1	1.3	4.5	n.a.
3	도어락 (8301.40)	8,662.5	8.0	9,875.7	14.0	3,891.6	n.a.	10.2	-	69.5	583.7	32.9	n.a.

(자료원 : WTA, 과테말라 중앙은행)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변압기(HS : 8504.33)
---	-----	-------------------

○ 시장동향

- 과테말라 변압기는 자체생산이 없이 전량 수입에 의존.
- 최근 연도 수입액은 '10년 3.7백만불, '11년은 6.4백만불 기록하였으며, '12년 상반기는 2.6백만불을 기록함.
- 한국산제품 품질에 대한 인식은 좋으나, 현재까지 수입은 미미.
- 변압기에 대한 수입관세는 0%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변압기는 주로 '10년까지 멕시코, 미국에서 수입되었으나, '11년부터는 콜롬비아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저가제품으로 중국산, 인도산도 일부 수입되고 있음.

【 과테말라의 변압기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8,111.7	-	3,660.2	-	6,371.2	-
1	콜롬비아	3,847.3	47.4	0	-	2,632.4	41.3
2	미국	3,027.5	37.3	1,149.7	14.2	2,347.3	28.9
3	멕시코	325.2	4.0	2,260.8	27.9	695.0	8.6
4	이탈리아	7.5	0.1	70.9	0.9	384.2	4.7
5	중국	120.7	1.5	29.5	0.4	154.9	1.9
14	한국	15.4	0.2	0.1	0.0	0.7	0.0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과테말라는 만성적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국가로, 발전프로젝트 확대, 송배전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2년에는 배전업체(Union Fenosa, EEGSA)의 800MW 급 전력공급입찰이 본격 시행되면서 향후 관련 전력기자재 수요 지속증가 전망됨.

2	품목명	에너지절감램프(HS : 8539.22)
---	-----	-----------------------

○ 시장동향

- 램프류는 과테말라 자체생산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에너지절감램프 수입액은 '10년 3.5백만불, '11년 3.9백만불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에너지절감램프에 대한 수입관세는 0%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에너지절감램프는 주로 저가제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제품이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이어 미국산이 19.7% 차지하고 있음. 한국산 제품은 수입 미미.

【 과테말라의 에너지절감램프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835.8	-	3,467.9	-	3,923.8	-
1	중국	846.9	29.9	1,116.5	32.2	1,301.1	33.2
2	인도	12.7	0.4	19.2	0.7	773.1	27.3
3	미국	524.1	18.5	530.9	18.7	507.3	17.9
4	엘살바도르	355.6	12.5	259.9	9.2	397.1	14.0
5	파나마	200.2	7.1	203.5	7.2	264.8	9.3
13	한국	10.0	0.4	9.9	0.4	10.1	0.4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과테말라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소득수준 대비 전력 사용료가 상당히 높은 실정임.
- 정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램프의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점차 확대되고 있음.

3	품목명	디지털 도어락(HS : 8301.40)
---	-----	-----------------------

○ 시장동향

- 디지털도어락은 과테말라 현지생산이 없어 전량 수입 중임.
- 연도별 수입액은 '10년 8.7백만불, '11년 9.9백만불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디지털도어락에 대한 수입관세는 무역협정 미체결국에는 10%이며, 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멕시코, 대만산은 0% 적용.

○ 경쟁 및 수입동향

- 디지털도어락은 멕시코, 이태리,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미미한 상태임.

【 과테말라의 디지털 도어락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6,957.4	-	8,662.5	-	9,875.7	-
1	멕시코	1,784.5	25.6	2,476.0	28.6	3,126.4	31.7
2	이탈리아	1,315.1	18.9	2,249.4	26.0	2,231.5	22.6
3	중국	1,196.3	17.2	1,293.8	14.9	1,850.8	18.7
4	콜롬비아	656.0	9.4	793.9	9.2	813.5	8.2
5	미국	938.6	13.5	790.1	9.1	771.3	7.8
11	한국	27.1	0.4	10.2	0.1	69.5	0.7

자료원 : WTA

○ 선정사유

- 과테말라는 인구 10만 명당 타살자수가 40명에 이를 정도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국가임. 따라서 주요 건물, 사무실에는 보안이 강화된 출입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도어락은 점차 디지털 첨단제품의 사용이 증가하며, 경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형 제품도 증가하고 있음.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 변압기
 - 변압기 신규수요 및 교체수요가 많은 대규모 전력업체(INDE, Union Fenosa, EEGSA) 등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 필요.
 - 전력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마케팅은 방한초청 수출상담회, 전력관련 전시회 초청, 기타 공장방문초청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
 - . Latin America Business Plaza 참가 (신흥시장팀, 10월)
 - KOTRA의 바이어 찾기, 조사대행,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을 신청하여 적합한 바이어와의 상담 사전 예약 필요(거래지원팀).
- 에너지절감형램프
 - 에너지절감형램프는 현재까지 저가 중시제품으로 이를 고려한 적정 제품을 선정하여 마케팅 필요.
 - 램프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Cemaco, Wallmart, 기타 철물전문점 등에 대한 일대일 마케팅 필요.
 - 그린에너지 관련 한국 전시회, 상담회 등에 대한 초청이 효과적.
- 디지털도어락
 - 매년 11월 과테말라시티에서 개최되는 과테말라 철물전시회(Ferret Expo)에 전시할 경우 중미 잠재바이어 발굴에 매우 효과적임.
 - 바이어가 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도록 샘플제공에 적극 대응 필요.

□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과테말라는 전기전자관련제품 수입시 국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 장벽은 없지만 제품의 안정성, 품질확인을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인지도 높은 국제인증 취득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 저가제품 선호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산 품질의 우수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현지시장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제품개발 및 마케팅이 필요.

- 시장협소로 대부분 수입상이 독점에이전트를 요구하고 있는 바, 현지 네트워크가 강하고 기술지원이 가능한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함.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과테말라 시장은 인구 14.7백만의 비교적 소규모시장임으로 소량주문이 일반적임. 따라서 샘플제공 및 소량주문에 원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 있음.
- 현지 바이어의 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현지어로 된 제품설명서, 카달로그 등 지원 필요.
- 전기제품, 기계 등의 경우에는 에이전트의 현지 A/S 등 기술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업체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됨.

□ 진출시 유의사항

-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간 중미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적용 중임.
- 미국, 멕시코, 대만, 콜롬비아, 칠레 등과 각종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 과테말라의 부가세(IVA)는 12%임.

10. 도미니카공화국

(무역관명: 산토도밍고)

가. 경제동향

□ 최근 3년간 거시 경제지표

○ GDP

- '13년 도미니카(공)는 GDP 4.5-5.0%사이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는 작년 '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남미국가들 중 가장 긍정적인 전망으로 손꼽힘.

【 최근 3년간 도미니카(공) GDP 성장률 】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성장률	7.8%	4.5%	4.7%

자료원: 중앙은행, EIU

○ 주재국 수출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최근 3년간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입 동향
대외 수출은 상당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면에 대외 수입에 있어서는 주춤한 모습을 보임.

	2010년	2011년	2012년 1-6월
수출액(백만 달러)	6,753.5	8,535.9	9,845.0
수입액(백만 달러)	15,489.1	18,420.0	18,420.0

자료원: 중앙은행, EIU

- 최근 3년간 한국의 수출동향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수출액(백만 달러)	148.3	152.8	84.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총GDP(백만달러)	51,657	55,666	58,217
1인당 GDP(달러)	5,231	5,538	6,001
환율(달러:페소)	36.75	38.02	38.97
소비자물가상승률(%)	6.2	7.8	0.7
외환보유고(백만달러)	3,342	3,637	3,012
인구(명)	9,884,371	10,010,590	10,135,105

자료원: 중앙은행, 통계청(ONE), EIU

□ 세계경기 침체이후 경제현황

○ 실물부문

- 도미니카(공)는 다소 침체적인 국제경기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까지 4.7%의 경제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주요 선진국과 라틴 아메리카지역의 평균을 웃도는 결과임.
- 주재국은 작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재정의 긴밀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벗어나있음.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수요 감소 때문에 뒤늦게 영향을 받고 있음.

○ 금융부문

- 환율은 2012년과 비슷하게 유지되어 2013년에는 평균 US\$1/RD\$ 40.8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한편, 도미니카(공)에 대한 외국인의 재화 및 용역 구매력도 국가 통제 하에 유지되고 있음.
- 국가 경제는 활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화폐가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부양을 위한 대책으로 2012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린 것에 기인함.

	전	후	
		12.05.31	12.07.31
콜금리	6.75%	6.00%	5.50%
기준 금리	9.00%	8.00%	7.50%

나. 3대 수출유망품목

3대 품목별 수입시장 통계

(단위:천US\$,%)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수입시장동향											
		주재국 수입시장						아국 수출동향					
		2009		2010		2011		2010		2011		2012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 (8714.19)	13,733	21.9	18,500	34.7	17,100	-7.5	3	100	1	-67	0	0
2	자동차 부품 (8708)	61,854	2.7	71,500	15.5	69,000	-3.4	5,400	-37	2,800	-47.3	2,000	40.3
3	CCTV (8525.80)	3,802	-53.0	4,200	10.9	3,900	-6.7	20	100	126	530	9	-67.4

출처 : 국제무역센터(ITC), 한국무역협회(KITA)

□ 3대 품목別 선정사유

1	품목명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	(HS : 8714.19)
---	-----	-----------------	----------------

○ 시장동향

- 도미니카(공)의 전체 교통수단 중 모터사이클(이하 오토바이)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약 1,500만대의 오토바이가 운행 중임.
- 2010년 기준 85,000대를 정도의 모터사이클가 유통되었고, 2011년에는 총 71,000여대의 오토바이가 수입됨. 또한 전체 오토바이 중, 연식 5년 이상의 오토바이가 전체의 85%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오토바이 부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쟁 및 수입동향

- 도미니카(공)은 오토바이 부속품을 생산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이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타이완(22%), 일본(2.9%), 미국(2.6%)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도미니카 공화국의 오토바이 및 부품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13,733	-	18,500	-	17,100	-
1 중국	8,490	61.8	11,848	64.1	12,113	70.8
2 타이완	3,809	27.7	4,808	26.0	3,804	22.2
3 일본	562	4.1	519	2.8	495	2.9
4 미국	483	3.5	697	3.8	440	2.6
5 콜롬비아	122	0.9	153	0.8	107	0.6
6 한국	-	-	3	0.02	1	0.01

자료원: 국제무역센터(ITC)

○ 선정사유

- 오토바이가 주요한 교통수단이며 대다수의 오토바이가 연식이 오래되어, 부품 교환 수요가 높음.
- 또한 오토바이 부속품들은 한국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브랜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사료됨.

2	품목명	자동차 부품	(HS : 8708)
---	-----	--------	-------------

○ 시장동향

- 자동차를 기본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연 평균 200만명 증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차를 구입하기 보다는 부품을 교환하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중하위 계층의 경우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날 때마다 부품을 교체하고 있어 향후 자동차 부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도미니카(공)의 자동차 부품 시장규모는 US\$ 7천만 불임.

○ 경쟁 및 수입동향

- 도미니카(공)는 자동차 부품을 자체생산하지 않음. 한 번 사용된 부품이나 결함이 있는 부품을 상업화하여 되파는 정비소들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100% 수입함.

【 도미니카 공화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61,854	-	71,500	-	69,000	-
1	미국	16,928	27.4	24,624	34.5	25,286	36.6
2	중국	5,297	8.6	6,614	9.3	8,468	12.3
3	타이완	5,396	8.7	6,989	9.8	6,764	9.8
4	일본	6,232	10.1	7,394	10.4	6,543	9.5
5	파나마	7,329	11.9	5,519	7.7	4,248	6.2
6	한국	8,507	13.8	5,363	7.5	2,829	4.1

자료원: 국제무역센터(ITC)

○ 선정사유

- 비교적 큰 규모의 시장으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양질의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집보다 차를 우선시하는 현지 문화상 앞으로의 잠재력이 큰 시장임.
- 한국은 현대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자동차 부품 분야에 있어 인지도를 쌓아왔음. FTA 미체결국으로 8%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기는 하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과 소비자 선호도의 상승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음.

3	품목명	CCTV	(HS : 8525.80)
---	-----	------	----------------

○ 시장동향

- 흉악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에서도 각종 보안장치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CCTV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을 철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근 시일 내에 발표예정.
- 또한 치안유지경찰관이 원격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음.

○ 경쟁 및 수입동향

- 도미니카(공)은 CCTV 제품을 전량 수입하고 있음.

【 도미니카 공화국의 CCTV 수입동향 】

(단위: 천불)

연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3,802	-	4,200	-	3,900	-
1	미국	2,182	57.39	2,951	69.98	1,932	49.11
2	브라질	-	-	31	0.74	781	19.85
3	타이완	174	4.58	258	6.12	412	10.47
4	중국	150	3.95	324	7.68	310	7.88
5	파나마	888	23.26	193	4.58	183	4.65
6	한국	-	-	20	0.47	126	3.20

자료원: 국제무역센터(ITC)

○ 선정사유

- CCTV와 같은 안전장치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 조항이 있으며 동 제품의 세금을 철폐하는 법령이 공포될 경우 현재 20%의 관세를 면제 받으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
- 도미니카(공)의 공공사업 및 통신부(MOPC)와 건설교통부(AMET)는 한국 수출입은행 기금으로 약 US\$ 3천6백만불을 산토도밍고 인공지능통행시스템 건설에 투자할 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CCTV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도미니카(공) 공공사업부는 2012년 6월, 수도 산토도밍고의 모든 교량과 공사현장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임.

다. 진출방안

□ 마케팅 방안

1. 모터사이클의 부분품, 부속품과 자동차 부품

- KOTRA의 사이어 상담 이용(거래지원팀, 수시)
- 바이어 방한사업 활용: Latin America Business Plaza(신흥시장팀, 10월)
- 도미니카(공) 내 유력 신문 광고 등

2. CCTV

- KOTRA의 사이어 상담 이용(거래지원팀, 수시)
- 바이어 방한사업 활용: Latin America Business Plaza(신흥시장팀, 10월)

□ 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관 의견

- 모터사이클의 부분품, 부속품과 자동차 부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접근의 위험성은 낮은 편임. 특히 CCTV 시장은 범죄의 증가와 관세 철폐 정책과 같은 시장 환경으로 인해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도미니카(공)는 가격에 따라 시장판도가 크게 좌우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국은 중국임.
- CCTV의 경우, 도미니카(공) 정부주도의 기반 산업시설 확충을 위해 고속 도로와 다리에 CCTV를 설치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수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의견

- 바이어들은 상기 품목들에 대해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시 되는 요소임을 언급함. 한국과는 지리적인 거리가 멀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국의 사례로 볼 때 거리보다는 가격이 더 중요한 요소임.

□ 진출 시 유의사항

- 상기 품목들은 아래와 같은 수입 관세율을 지니고 있음.
 -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 자동차 부품: 8%
(자동차 범퍼 HS: 870810, 방열기 HS: 870891는 14% 관세적용)
 - CCTV: 20% (관세철폐 법령 제정 중)



작성자

◆ 중남미지역본부	김형일 차장
◆ 멕시코시티무역관	김형일 차장
◆ 상파울루무역관	정석수 과장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과장
◆ 보고타무역관	성기주 과장
◆ 카라카스무역관	김철희 관장
◆ 산티아고무역관	강명재 차장
◆ 리마무역관	박찬길 관장
◆ 파나마무역관	이 훈 과장
◆ 과테말라무역관	정덕래 관장
◆ 산토도밍고무역관	김종원 관장
◆ 신흥시장팀	안성희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2-056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 중남미 >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